

반전평화팀 활동 평가와 한계, 이동화씨 논문 2004년 출처 사이버 NGO지료관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II.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	-----9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형성	-----9
2. 이라크 전쟁 전(前) 활동정리	-----12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1) 팀원들의 출국 그리고 이라크 입국 비자	
(2) 10일간의 이라크 현지 반전평화활동	
(3)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이라크 2차 현지 반전평화 활동	
(4) 전쟁 대비 요르단 캠프운영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3. 이라크 전쟁 기간 중(中) 활동정리	-----24
1) 이라크 현지 활동	
(1) 첫 번째 공습, 그 이후	
(2) 이라크 정부의 감시와 통제 - 각 국의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방명령	
(3) 박기범 팀원의 재 입국,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 봉사활동	
(4) 미군의 바그다드 입성 - 막바지 반전활동	
2) 요르단 암만에서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	
(1) 요르단 캠프 활동	
(2) 한국군 파병	
(3) 배상현, 임영신 국적 포기 선언	
(4) 이라크 재입국 추진	
3)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1) 개전(開戰) 이 후 반전시위 중심으로	
(2) 명동성당 천막농성	
4. 이라크 전쟁 후(後) 활동정리	-----41
1) 이라크 민중지원팀 활동	
(1) 의료지원 및 약품지원	
(2) 장애 아동 시설 지원	
(3) 본격적인 이라크 민중지원 사업	
(4) 팀원들의 복귀 이 후	
2) 이라크 민중지원팀 지원연대 활동	
5. 해외 단체 활동 정리	-----54

III.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되돌아보기 -----	57
1. 반전평화팀 활동 되돌아보기 -----	57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1) 정보, 준비 부족	
(2) 내부갈등, 원칙의 부재	
(3) 언론과의 관계	
(4) 팀원 개개인의 능력부족	
2. 이라크 민중 지원팀 활동 되돌아보기 -----	66
1) 민중지원 사업 내용 형성과정	
2) 민중지원 사업 활동 기간	
3) 민중지원 활동 이 후	
3.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과 -----	72
IV. 결론 -----	74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74
2. 연구의 한계 와 향후과제 -----	77

참 고 문 헌 -----	79
부 록 -----	82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일지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최초 활동 기획안 2003/01/15	
3. IPT 로의 초대	
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설립 계획서 2003/02/05	
5.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과 현지 활동계획서	2003/02/27
6. 미국의 개전(開戰)에 따른 반전평화팀 반대 성명서 2003/03/20	
7. 미국 개전에 따른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성명서 2003/03/20	
8. 전쟁에 대한 기록, 증언 - 배상현 2003/03/29	
9.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대한 성명서 2003/04/01	
10. 임영신,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관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명서	2003/04/03
11. 이라크 전쟁 직 후 현지 의료 상태 조사 보고서 - 임영신 2003/04/14	
12. 이라크 민중지원사업 계획서 2003/04/29	
13. 반전평화팀지원연대에서 민중지원팀 지원연대로의 轉化 계획서	2003/04/28
1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마무리 행사 안내장 2003/08/23	
15.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현지 성명서 2003/09/25	
16.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이라크 인들에게 받은 편지들	2003/10
17. 바그다드 지도	

표 목 차

<표 1> 인터뷰 대상자 현황 -----	7
<표 2> 해외 주요 단체 활동 비교 -----	55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의 최초의 공격은 조지부시정권에게 알 카에다 조직과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기 위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주었고 같은 해 말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전격 공습한다. 2002년 연두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 3개국을 ‘악의 축’의 나라로 지명하고 특히 이라크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비추기 시작한다. 같은 해 9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폐기 등 요구하면서 이라크 정권교체를 언급하였고 11월 8일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일치로 거둬 이라크의 무장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1441을 채택해 유엔 무기사찰단을 이라크에 다시 파견하면서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곧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국의 판단으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 표명이었다.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공의 분위기가 고조됨과 동시에 중동지역의 아랍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시민사회 내의 반전 분위기도 더불어 높아져 갔다. 2003년 2월 미국과 영국, 스페인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공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라크 침공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다다르게 된다. 이에 유엔 안보리 내의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공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2003년 2월 15일 당일 날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의 반전 시위¹⁾를 하면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이 자국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와 대량 살상무기 제거와 테러조직과 이라크 정부의 연계를 명분삼아 2003년 3월 17일 후세인정권에 대해 ‘48시간최후통첩²⁾’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였고 3월 20일 새벽 5시 30분(현지 이라크 시간) 최초 공습을 하면서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었다.

2003년 2월 7일 한국에서 한상진(평화운동가), 이영화(지역 NGO 활동가), 남효주(청소년)는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던 이라크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1진으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최초로 전쟁예상지역에 전쟁을 막기위한 직접행동의 시초이었다. 1진을 시작으로 본 연구자가 2003년 12월 12일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총 30여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 전, 중, 후까지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반전, 평화, 민중지원활동을 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3년 6월 5일부터 동년 12월 12일까지 약 6개월 이상 이라크에서 체류하면서 처음 두 달간의 이라크 민중지원팀(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전쟁 이후 팀명을 바꿈)원으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내 알 마시텔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며 7월 28일 이라크 민중지원팀이 현지(이라크)활동을 정리하고 난 후 개인적 입장으로 12월까지 이라크 민중지원팀이 활동했던 알 마시텔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했다.

2003년 초 미국은 이라크에 석유자원 확보와 세계패권의 전략의 일환으로 침략을 하려했고 이에 국내·외 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고 반대를 했었다. 그건 연구자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2월 초부터 언론을 통하여 ‘인간방패’라는 생소하지만 너무도 가슴을 흔들었던 활동을 접했다. 이는 자신의 목숨

1) 2003년 2월 15일 반전시위에 참가한 인원수는 유럽에서 스페인 400만명, 이탈리아 300만명, 프랑스 50만명, 영국 200만명, 독일 60만명, 아일랜드 6만명, 네덜란드 7만명, 스위스 4만명을 비롯해 노르웨이, 헝가리,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에서도 수만명이 참가하여 유럽에서만 천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중동에서는 시리아 10만명, 레바논 만명, 요르단 3천명, 팔레스타인 600명, 미국 유엔본부앞에서 10만명, 캐나다 몬트리올을 10만명, 토론토 7만 5천명, 호주 10만명, 뉴질랜드 1만 4천명, 일본 6천명, 한국 2천명, 태국 3천여명, 말레이시아 2천여명, 그 외 쿠바와 칠레,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도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한겨레 신문, 2월 16일자>

2) 2003년 3월 17일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이 48시간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 사실상 선전포고.

을 담보로 전쟁을 막으려는 어쩌면 한 개인이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용기와 결의 찬 행동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라는 단체로써 활동을 했으며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을 주도했다.

내가 이 단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 같은 학교(성공회대 NGO 대학원)에 재학중인 임영신씨가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임영신씨의 활동을 접하고 그의 활동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 실으면서 더 이상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꼭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막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고 싶었고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였고 이라크는 미국의 미사일과 포탄에 무참히 유린(蹂躪)되었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고 4월 중순경 미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하면서 사실상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려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임영신씨는 연구자에게 이라크 민중지원사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을 승락하면서 6월 초에 이라크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연구자는 소위 '인간방파'라 불리어졌던 많은 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여론에서 비추어졌던 모습과는 달리 팀원들은 너무도 평범했다. 신문과 매체를 통해서 본 그들은 남다른 신념에, 자신의 목숨을 대의에 기꺼히 맡길 수 있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로 비추어졌었는데 막상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팀원들과 두 달동안 현지 이라크에서 생활하면서 이라크 민중지원활동도 같이 하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팀원들 사이에서는 많은 갈등과 경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팀원 중 한 명은 “모순적이게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내에는 평화가 없었다.” 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최초의 반전평화운동팀내에서 평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서로간의 개인적인 차이인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외적변수가 내부 팀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던 와중 현지(이라크)에서 팀 활동은 7월 중순에 끝나고 7월 말에 현지를 떠나서 8월 중순 경에 한국에서 마지막 보고대회와 문화제를 하고 팀을 해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당시 연락을 주고 받았었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염창근씨에 의하면 행사는 잘 치루어 졌지만 조금 쓸쓸한 행사였다고 행사의 분위기를 전했다. 초기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 보여주었던 언론의 관심과 시민사회내의 주목이 전쟁이 끝난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시들해졌다는 말이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가슴 한 곳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다.

분명히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한국 시민사회내에서는 분쟁지역에서 직접 행동을 한 최초의 사례였다. 기존의 선례(先例)가 없는 것은 고스란이 팀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전쟁 전, 전쟁 과정, 그리고 전쟁 이후 팀의 활동을 할 때 모든 것들을 처음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했어야 했다. 다행히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끝까지 계획한 활동들을 실행하였다.

8월 23~24일 마무리 행사를 통해서 7월 말까지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은 정리를 했지만 당시에 두 명의 팀원들이 현지(이라크)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마무리 행사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재정상태의 한계와 한국 시민사회내의 관심의 변화에 따른 요구 때문이기에 당시 마무리 행사를 주도했던 지원연대 사무국장 염창근씨에 따르면 “반전평화팀 마무리행사는 시간에 쫓겨서 진행되었고 그래서 깊이 있고 체계적인 활동정리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행사의 한계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정리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초기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연대를 제안했던 한상진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평가와 정리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시각으로 각자의 경험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초기 생성부터 팀 활동 정리할 때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 활동에 대한 성과를 찾아봄을 주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팀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내부적 갈등과 한계들을 각 활동가의 시각과 연구자의 시각으로 살펴보려 한다. 더불어 그러한 갈등들의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크게 현지(요르단 암만과 이라크)에 활동했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하 반전평화팀)과 한국에서 활동했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이하 지원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 반전평화팀원 개인지원그룹들이 같이 연대활동을 하였지만 이 연구의 대상 단체는 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의 활동으로 한정하고 덧붙여 해외 단체(IPT와 휴먼셀즈 그리고 CPT)의 활동을 비교 정리함으로 한정한다. 또한 반전평화팀의 활동시기는 반전 평화팀이 논의 되기 시작했던 2002년 말부터 연구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2003년 12월까지이다. 물론 7월 31일 현지 이라크에서 공식적인 현지 활동을 정리하고 2003년 8월 23일 연세대에서 열렸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보고대회 및 평화심포지엄과 문화제, 2003 이라크, 전쟁과 평화’ 라는 행사를 통해서 반전평화팀의 공식적인 활동을 정리되었지만, 정리 이 후에도 현지 이라크에 팀원들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2003년 10월 말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막기 위해서 조사팀을 한 차례 더 벌이는 활동을 지속했고 본 연구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12월까지 활동은 했지만 활동들이 팀 활동의 연장이었기에 실질적인 반전평화팀의 활동은 2003년 12월까지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구성은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전쟁 전, 중, 후기간으로 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 활동들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전쟁 전은 초기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 대한 논의가 시작한 시점부터 개전 전까지의 이라크, 요르단 암만,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현지(이라크와 요르단 암만)와 한국이라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쟁 당시는 3월 20일 바그다드와 이라크 전역에 있었던 최초 개전(開戰) 폭격일로부터 4월 11일 바그다드에서 있었던 휴먼셀즈 마지막 시위³⁾까지로 하고, 전쟁 후의 시기는 4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하고 마찬가지로 현지와 국내의 활동을 나누어서 정리한다.

2) 연구 방법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대의(大義)와 현지 이라크에서의 직접적인 반전평화행동이라는 방법에 동의한 개인들이 모여서 결성된 팀이기에 각 개인이 곧 조직이고 조직이 곧 개인인 독특한 팀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당시에 작성된 모든 편지와 기록문, 보고서, 회의록등을 조사하고, 또한 초기 반전평화팀일 때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활동을 지속했던 평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의 활동들과 그 활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들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자가 작성했던 일지와 보고서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 - 1> 인터뷰 대상자 현황

대상자	직업	나이	인터뷰 일자 (2004년)	소속	활동지	활동기간 (현지활동기간)	비고
박기범	동화작가	32		어린이도서연구회	요르단, 이라크	03년 2월~03년 8월(4개월)	반전평화팀 3진

3) 공식적인 종전일은 미국 부시 대통령에 의한 5월 1일이다. 하지만 4월 9일 바그다드 함락 이후 실질적인 전쟁은 끝났으며 4월 11일 IPT 회원들과 한국 팀의 유은하, 박기범씨는 마지막 반전집회에 참석한다. 그 후부터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더 이상의 반전평화팀의 활동은 끝났고 전후 이라크 민중지원활동을 시작한다.

한상진	평화운동가	39	01/10	비폭력평화연대	요르단, 이라크	03년 2월~03년 8월(4개월)	반전평화팀 1진
유은하	기독교인	30	전화 인터뷰	한국아나뎃티 시트	이라크	03년 2월~03년 7월(4개월)	반전평화팀 4진
대상자	직업	나이	인터뷰 일자(2004년)	소속	활동지	활동기간(현지 활동기간)	비고
오김숙이	여성운동가	35	01/12	여성해방연대	요르단	03년 2월~03년 3월(1개월)	반전평화팀 2진
성혜란	다큐감독	28	01/07	송실대	요르단, 이라크	03년 2월~03년 8월(4개월)	반전평화팀 2진
최혁	정당인	38	01/08	사회당	요르단, 이라크	03년 2월~03년 7월(5개월)	반전평화팀 3진
오수연	소설가	39	01/13	민족문학작가 회의	요르단, 이라크	03년 3월~03년 7월(3개월)	민중지원연대 3진
임영신	대학원생	35	01/09	성공회대	요르단, 이라크	03년 3월~03년 5월(3개월)	반전평화팀 4진
염창근	대학원생	29	01/08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모임	한국		지원연대 사무국장
강인화	대학원생	29	01/08	이화여대	이라크	03년 6월~03년 7월(1개월)	민중지원연대 4진
전승로	대학생	23	01/07	경희대	요르단, 이라크	03년 2월~03년 7월(3개월)	반전평화팀 2진
김하운	대학생	25	01/07	서강대	요르단, 이라크	03년 3월~03년 8월(4개월)	민중지원연대 1진

II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의 활동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형성

반전평화팀의 구성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한상진(평화운동가, 비폭력 평화연대)씨이다. 한상진씨는 개인

적으로 해외 평화운동가들과 교류가 있었고 2002년 후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위기가 고조되자 전쟁을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던 중 96년부터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IPT(Iraq Peace Team)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한상진씨는 “2001년 초에 미국의 넬 덩컨 목사와 데이비드 핫소가 ‘국제 비폭력 평화대회’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핫소가 전세계 방문해서 국제 비폭력 평화대회 제안을 하였는데 그때 한국에도 방문을 했다. 그 때부터 개인적으로 국제 비폭력 활동을 준비하고 시작했다. 그때 비폭력 평화 단체(후에 비폭력 평화연대로 바뀜)가 한국에서 최초로 생겼다.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고 개인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을 가려 했는데 여러사정 때문에 못 갔고 그 후에 이라크가 터졌고 그래서 데이비드 핫소에게 ‘전쟁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의를 했더니 그가 IPT⁴⁾(Iraq Peace Team)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 IPT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니 당시에는 신청을 하면 이라크로 들어가는 비자가 대사관에서 바로 나오는 상황이었다.”

한상진씨는 개인적으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들어가서 직접행동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조직해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건의를 했던 그룹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에서였다. 당시에 예비 병역 거부자였고 나중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사무국장인 된 염창근씨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2002년 12월 말쯤에 한상진씨가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이라크 전쟁이 임박했고 사태가 북한과 연관이 되어있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것이다. 부시의 군사행동이 가시화되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 한선배가 여기저기 이야기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한선배가 정식으로 이야기 한 것은 1월 5일 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에서였다. ‘이라크에 인간방패⁵⁾로 가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자.’ 라고 제안을 하였고 우리 모임은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초기에 병역거부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라크에서 직접행동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깐 실제로 병역거부자들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걸려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내가 선택이 되었다. 하지만 나도 병무청에서 해외여행 허가서가 발부가 되지 않았고 계속 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되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병역거부자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은국(경희대 재학)씨가 나에게 와서는 ‘형 나 이라크 갈래!!’, 이러한 사실이 삼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당시 촛불집회나 반전 집회때 몇 번 발언을 하면서 운동진영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자원하기 시작하면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가는 사람 중심으로 준비가 되어갔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에서 한상진씨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법상 해외로 나가기 위한 여권을 만들 수가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단체와 개인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은 한국의 독자적인 팀이 현지에서 활동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함을 감안하여 IPT의 일원으로써 합류하는 것으로 하고 1월 말 1진 출국을 목표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1월 15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기획안⁶⁾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최초의 전쟁 예상 지역 직접행동을 위한 공식팀이 구성된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 재야 단체들과도 접촉하기 시작했다. 당시 주로 접촉한 단체는 각 정당, 종교단체, 의료단체, 언론단체, 사회단체들이었다.

소식을 접한 각 단체와 정당은 실무자들을 보내면서 신중히 결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상 이라크로 날

4) IPT(Iraq Peace Team, 이라크 평화팀) :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Voice in the Wilderness(광야의 목소리)’ 단체가 설립한 모임, 1996년부터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전부터 유엔의 경제제재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진행했다.

5) 인간방패(human shields) : 폭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위치하면서 폭격을 막고 그 시설을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인간방패라고 한다. 인간방패의 활동과 IPT의 활동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방패를 언급한 것은 국제 반전활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기인된 것이다.

6) 부록 2 참조

아가서 직접행동을 하기 위해 모인 지원자들은 직업운동가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자, 여성운동가, 학생, 신부님, 동화작가, 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여성해방연대 활동가이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전(全) 팀장이었던 오김숙이 쓰는 팀결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의 구성은 조직적인 계획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몇 명의 개별 운동가, 학생, 아동작가, 화가, 신부, 사업가 등이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한국 반전평화운동이 시작되고는 있었으나 미국의 대 이라크침략에 대한 직접행동을 국제적 연대의 형태로 조직할 만큼의 토양이 갖추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팀원들의 다수가 미국 IPT 활동, 전쟁반대의 직접행동으로서 이라크로 들어가 인간매를 형성한다는 계획에 강렬한 고민에 휩싸였다. 그것은 서로가 살아가는 땅, 국적, 민족, 성별을 뛰어넘어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보편적 열망이 그 활로를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월 4일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억제를 위한 국제적 직접행동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써 자원자들이 중심으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구성되었고, 출국할 수 없었던 자원자와 팀원들이 소속한 단체를 중심으로 2월 5일 반전평화팀 지원연대가 구성하였다.

2. 이라크 전쟁 전(前) 활동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1) 팀원들의 출국 그리고 이라크 입국 비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원들은 최초 1진 출국을 2003년 1월 말에 하려하였지만 재정 및 실무준비가 되지 않는 관계로 2월 초로 미루였었다. 2월 7일 한상진(평화운동가, 비폭력평화연대)씨와 남효주(청소년), 이영화(지역 NGO활동가)로 구성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1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라크로 향했다. 당시 남효주와 이영화씨는 모녀기간이었고 소위 명망있는 운동가도 아니었다. 하지만 전쟁을 막고자 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이라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 작성한 남효주씨의 결의서를 보면 “나는 평화운동가도 아니고, 방송국의 종군 기자도 아니며,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학생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안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없었던 것 같다..... 평화운동가도 종군기자도 아닌 10대의 청소년으로써 반전(평화)운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당시 1진이 요르단에 도착하고 난 후 그들은 빨리 이라크로 들어가기 위해 그 동안 염두해 두었던 IPT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라크 대사관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현지의 사정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자를 획득하기가 힘이 들었다. 당시 이라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관광비자로 들어가는 방법, IPT 비자로 들어가는 방법, 휴먼셴즈 비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IPT 비자를 생각하고서 활동을 진행시켰는데 현지에서 IPT 비자는 거의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유는 전쟁이 임박함에 따라 이라크 대사관에서 입국을 철저히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전쟁의 분위기가 한참 고조되고 있었고 전쟁은 기정사실이고 시기만이 남았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와중 2월 16일 반전평화팀 2진(1차)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18일날 요르단에 도착하였다. 2진(1차)은 성혜란(대학생 신문기자, 다큐 제작), 은국(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 경희대 학생), 전승로(경희대 대학생), 허혜경(사회당원)으로 구성되었다. 같은날 1진으로 갔었던 남효주, 이영화 모녀는 건강 악화로 18일 귀국하였다. 19일날 김력군(경인방송 PD), 오김숙이(여성운동가, 여성해방연대)로 구성된 2진(2차)이 출국하였다. 같은 날 요르단에 머물던 한상진과 허혜경씨는 답사차 이라크에 입국하였고 이라크 현지에서 IPT 및 반전활동가들과 간담회, 반전연대활동등을 진행하였다. 요르단에 있던 팀원들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발생될 난민구호캠프 설치준비를 하였다.

2월 22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이 출국하였다. 3진은 박기범(동화작가), 이윤벽(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 임종진(한겨레 사진작가), 최혁(사회당원)으로 구성하였고 23일 요르단 암만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있는

팀원들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라크에 들어가 있는 한상진, 허혜경씨를 제외한 전원이 모여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체계와 팀 성격, 그리고 계획들을 수립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는 내일이라도 이라크에 폭탄이 떨어질 듯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팀의 외형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임시대표와 재정담당을 세움으로써 임시체제로 구성하고 현지의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논의를 할 때에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미국 IPT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었지만 현지의 상황이 미국 IPT측에서 비자 발급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지의 상황이 매일 급박하게 변해가는 시점이었기에 기존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한국의 자발적인 반전평화팀으로써 독자 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임시대표였던 오김숙이는 1차 임시회의 결과보고서에서 팀의 위치와 활동계획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미국 IPT 합류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한국의 자발적인 반전평화팀으로서의 독자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위상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활동의 수위로는 전쟁발발 이전시기에 이라크 현지에서의 반전평화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각 팀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5일 이라크에 입국했었던 한상진씨와 허혜경씨가 요르단으로 다시 나오으로써 팀 체계를 한상진, 오김숙이 두명으로 공동대표로 바꾸고 당시 요르단에 있었던 반전평화팀 전원이 이라크에 입국하기로 결정하고 27일 요르단에서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을 가진후에 한상진 씨를 제외한 팀원 열명은 이라크로 향하였다. 당시에 한상진씨가 남은 이유는 이라크 입국 비자를 IPT 비자로 받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들어갔던 팀원들의 비자는 관광비자였었다.

(2) 10일간의 이라크 현지 반전평화활동

28일 요르단 암만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총 12시간 가량을 차를 타고서 바그다드에 도착한 팀원들은 이라크 정부에서 배치해준 정부요원과 가이드와 함께 본격적인 현지 반전평화활동을 하게되었다. 관광비자의 기간이 불과 10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짜여진 일정이라 팀원들이 원했던 이라크 민중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쉽지 않았다. 당시에 했던 주요 활동들은 현지 평화운동가와 이라크 주민들과 함께 하는 반전 평화행진, 캠페인, 고아원, 박물관, 장애인 시설, 병원방문, 이라크에서 오래동안 활동했던 해외 평화운동가들과 만나서 한국의 반전 평화의지를 알리고 교류하였다. 또한 반전평화팀 독자적으로 행사를 준비해서 바그다드 시민들과 함께 평화행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3월 4일 바그다드 타르 광장에서 진행한 행사에 대해서 동화작가 박기범씨의 3월 4일자 일지에 따르면

“..... 그림이 되어갈수록 사람(이라키)들 관심이 커졌고, 우리는 붓을 현지인들에게 건네었다. 구경하던 이라크 시민이 붓을 건네 받아 쓴 ‘PEACE’ 글자에 색을 입혔다.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구경을 하던 아이도 붓을 건네 받아 그림에 페인트칠을 했다. 걸개 그림 그리기를 다 마쳤을 때 우리 팀원들은 모두 나란히 그 앞에 늘어선 한 사람씩 매직으로 자기가 하고픈 말을 써 넣었다. 팀원들이 모두 한 마디씩 쓰고 난 뒤, 이라크 시민들에게 매직을 건넸다. 콧수염에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아랍글자로 무어라 썼고, 허름한 잠바를 입은 청년이 그것을 건네 받아 또 한마디를 썼다. 매직은 아이에게도 돌아갔고, 광장을 지키는 군인에게도 돌아갔다. 그리고 우리 팀의 여행 가이드를 해 주고 있는 카심씨가 매직을 건네 받았고, 늘 우리 곁에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던 정부 요원도 구두를 벗고 올라와 한 마디를 썼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이라크의 민중이 함께 만든 걸개가 되었다. 그 광장에 있던 어른, 아이, 군인, 정부요원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땅에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바란다는 마음을 그 걸개에 담았다.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걸개 작업을 다 한 뒤 광장 뒤편 잔디밭으로 자리를 옮기려 아직 마르지 않은 걸개를 옮기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행렬이 되었다. 평화팀원들과 아이들이 걸개 끝자락을 잡아 나르는 것만도 하나의 행렬이었는데 우리 들레를 감싸며 따라오는 시민들, 그리고 마치 우리를 호위라도 하듯 곁에서 따라오는 군인들까지.”

(3)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이라크 2차 현지 반전평화 활동

3월 6일 일주일 간의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팀원들은 요르단으로 복귀하였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배상현(열린사회희망연대), 유은하(한국아나뱃티스트 센터), 이해종(열린사회희망연대), 임영신(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주재일(뉴스엔조이 기자), 최병수(화가,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4진이 KLM 네덜란드 항공편으로 한국을 출발했고 다음날 암만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합류했다.

당시 현지의 분위기에 대해 유은하씨의 3월 8일자 첫 편지에 따르면 “...이라크 현지 분위기는 이미 전쟁준비 태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란, 쿠웨이트, 요르단 등의 인접국가에 각 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고, 3월 5일 이미 이라크에 들어갔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말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군인들은 바그다드의 집집마다 4개월어치의 식량과 전쟁준비물품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미군이 자신들의 주둔지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이미 이라크에 들어가 있던 평화운동가들은 속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대표적인 휴먼셀즈 팀의 115명, IPT 멤버 20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숫자만이 남아있고, 현재 요르단에서 이라크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4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월 11일, 12일, 13일 삼일에 걸쳐 반전평화팀은 3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라크로 일부는 재입국, 일부는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팀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고서 본문 후반부에서 자세히 밝히겠지만 팀 내부의 갈등이 입국 문제를 통해서 표출되었던 것이다. 팀원들의 수보다 적게 비자가 나오는 바람에 일부의 팀원들을 입국팀에서 제외했어야 하고 이에 합의를 보기 위한 어떠한 원칙도 부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하루간격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던 이라크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라크 재입국 1팀은 임영신 최병수, 최혁, 임종진 기자 외 1명이고 2팀은 박기범, 성혜란, 이해종, 정재원씨 그리고 3팀은 배상현, 유은하, 주재일로 구성되었고 각각 11일, 12일, 13일 암만을 출발해서 이라크 바그다드로 향했다. 그리고 암만에는 오김숙이와 전승로가 남아서 암만 캠프를 운영하면서 난민구호활동을 모색하고 이라크 현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대화통로 역할을 하였다. 이라크로 재입국한 1팀은 주로 이라크 전역을 돌면서 조사작업에 열중했다. 당시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지역을 조사한 임영신씨의 3월 13일 현지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제한 구역 내 영국군 폭격으로 인해 가장 최근 (2002년 12월) 폭격피해를 입은 피해자 민가방문 조사하였다. 아버지는 다리를, 6살짜리 아이는 배에 파편이 박히며 손가락이 잘리고 배에 파편을 제거한 큰 흉터를 2살짜리 동생은 열화우라늄탄 영향으로 다리에 이상근육이 생겨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 그러나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아동전문병원 방문으로 경제 제재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현황을 조사하였다. 매달 바스라에서만 600명의 아이들이 경제 제재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 소아백혈병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한달 6달러의 봉급을 받는 의사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신약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 걸프전 당시 열화우라늄탄 집중 폭격지에 방문했는데 현재까지도 우라늄이 유출되고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곳에서 임종진 기자는 사진을 찍고 최병수 화가는 부시 마스크를 쓰고 열화우라늄탄으로 폭파된 탱크에 올라가 퍼포먼스를 하였다.”

2팀과 3팀은 바그다드 시내에서 캠페인과 반전 행진, 그리고 고아원방문활동, 장애인 시설등을 방문했다. 16일 바그다드 내 타르 광장에서 반전평화팀이 주최하는 마지막 반전시위가 있었다. 당시 대형결개그림인 야만의 등지기 위에서 춤사위를 펼친 유은하씨의 3월 17일자 일지에 따르면 “4시 즈음, 1,20명의 평화운동가들이 협력하기 위해 광장으로 오고, 이라크 방송사도 왔습니다. 그림은 바닥에 깔려 있고 저는 그 곁에서 있었습니다. 복채는 박기범씨가 잡고 저는 팽과리를 들었죠. 리허설이었고 뛰고 없는 채로 그냥 팽과리를 울리며 그림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구 위를 느린 걸음으로 걸으며 한국 춤사위를 추고, 미사일 발에 들어서는 파괴와 고통을 표현하고 그 마음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울었습니다. 실은 그림에 들어서기 전부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개전을 하루 남겨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밖에 없구나...그림 걸어놓고, 춤추고, 우는 것,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

7) 야만의 등지기(NEST OF SAVAGE) : 최병수 미술가의 그림으로 6×8.4미터에 걸친 대형 결개그림으로 이를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닌 것처럼 그림 위를 구르고, 용수철처럼 튀고, 울고 북소리가 그치고 음악이 흐를 즈음에 아바야(이라크 여성이 착용하는 검은 색 긴 천)를 벗어내고 다닌다. 흰 천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고,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와서 같은 그림 위에 앉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국팀과 각 평화 운동가들이 한 아이씩을 데려와 그림 위에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를 죽이지 마세요’ 였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세계 각국에서 온 활동가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 배상현(휴먼 쉼즈로 합류), 유은하, 한상진(IPT로 합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팀원은 암만으로 복귀했다. 그 때는 이미 부시가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후라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전쟁을 맞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17일 밤 바그다드를 떠나면서 성혜란씨의 3월 17일 일지에 따르면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 까요? 휴먼쉼즈로 가겠다고 남아 있는 상현이 오빠에게 쪽지와 오빠가 내게 준 돈을 돌려주고 버스를 타러 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세이프(구두 닙이 소년)를 보고 울고, 멀리 비스듬히 서 있는 카심(가이드)을 보면서 울고, 어둠속에서 서 있는 상현 오빠를 보며 울었습니다..... 차가 달리며 지나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 바그다드 시내를 보며, 눈물을 그치지 못하면서 딱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전쟁 나면 안 되는데.....’ ”

(4) 전쟁 대비 요르단 캠프운영

19일 요르단에 있는 반전평화팀은 이라크 현지에 팀원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요르단캠프를 운영하며 상황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라크 상황을 파악하고 이라크에 있는 3명의 팀원들이 안전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밖에 요르단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반전행동과 난민지원활동을 전개 및 준비하였다. 그리고 오김숙이공동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라 체계를 재 정비했다. 팀장에는 이창용, 언론담당자에 임영신, 난민지원담당자에 주재일, 오수연, 이라크 현지상황파악은 정재원으로 하고 20일 개전 예상에 따른 대책으로 전쟁 중단 요구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라크로 재 입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이라크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날 20일 새벽 미국은 이라크에 공습을 시작하였고 전쟁은 시작되었다.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시작은 반전평화팀과 같이 했다. 이라크로 가서 직접행동을 하기로 자원한 사람들 중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과 반전평화팀원의 지원단체나 지인들, 이 지원연대를 결성하였다. 초기 지원연대의 활동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보내려 했기에 한국군 파병저지 운동과 이라크 평화팀 지원사업을 병행했다. 한국군 파병저지 운동은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를 통해 진행하였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단을 결성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지원사업으로는 모금활동, 여론확산 활동, 의약품 지원 등이었다.

2월 5일 사회당 중앙당사 강당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원연대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에 염창근(예비 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선임하고 후원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조직으로써 기본 구조를 형성하였다. 7일 1진 파견을 대비해서 손이덕수 자택에서 환송식사, 응급치료 교육(이지은, 건강을 위한 국민연대), 준비물 점검(개인물품, 기초 의약품, 비상식품, 건강관리 식품, 깃발), 활동과 확인 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하였다.

2월 7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1진이 출국하기 전에 출국 기자회견을 가지고 후 2진 참가자 모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였다. 여권, 비자발급, 재정, 결의서, 자기 소개서, 연락처등을 확인하고 2진 팀장을 은국으로 선출하고 예정 출국일을 15일로 확정하고 합숙일정 및 프로그램, 2진 출국방법을 논의하였고 2월 10일 여성해방연대 사무실에서 2진 참가자들이 2차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 때부터 여성해방연대는 전 조직의 역량을 지원연대에 투여하고 주도적으로 지원연대 사업들을 공유, 지원하였다. 당시 모임을 통해서 반

전평화팀의 준비가 너무 부족함을 자각하고 타 단체와 연대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그리고 이후 반전평화팀에 대한 참가자 요건을 결정한다. 가족의 동의, 사망을 포함한 유사시에 대한 각오, 개인 결의서 및 기록부 작성, 참가하는 날부터 일지 작성, 일정상의 재정 분담, 기본적 회화능력등이다. 그리고 1차 모임을 통해서 결정한 출국일을 일단 '2.15 국제 공동반전 행동' 집회에 참가하고 난 다음날 16일로 미루었고 각 단체에게 필요한 준비를 분산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일단 홍보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의료지원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 그리고 여론확산을 위해서 여러 투쟁들을 제안, 조직하였다. 당시 주도적으로 결합한 곳은 여성해방연대와 사회당 반전평화특별위원회였다. 여성해방연대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제목의 반전평화투쟁을 제안하였고 계획을 지원연대와 함께 공유하였고 사회당 반전평화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함께 한다.' 라는 300단체지지 지원성명 받기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계획을 지원연대와 함께 공유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언급하고 있는 '인간방패' 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이유는 표현 자체가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반전평화 실현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모든 생명을 옹호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월 12일 여성해방연대에서 3차 모임을 진행하면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위상과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명확히 IPT에 합류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고 따라서 최대한 이라크에 남아있는 것이 기본 방향이며, IPT의 원칙대로 이 전쟁의 증언자, 목격자가 되는 것, 현지에서 IPT의 한국팀으로 활동하는 것, 동시에 요르단에 캠프를 차리고 이후 후속활동 및 지원활동을 벌여내는 것, 또한 난민 구호활동과 의료지원활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월 15일 지원연대는 국제공동반전집회에 참가하였고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진 참가자들이 단상에 올라 발언하였다. 더불어 모금운동을 진행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지원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염창근 씨는 "돈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은 1진이 출발 하고 난 후 2월 15일 마로니에 평화반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집회장에서 모금함을 들렸는데 백만원 넘게 거리 모금이 되었고 그 때부터 언론이 조명이 되었고 다음날 2진 출발하고 난 직 후부터 언론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렸고 모금액도 많이 들어왔고 성격상 평범한 사람들의 후원금이 소위 장난이 아니었죠. 소위 땀죠.." 라고 이야기 했다.

2월 16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1차 팀(성혜란, 은국, 전승로, 허혜경)이 출국하였고 19일 날 2진 2차 (김력군, 오김숙이)팀이 출국하였다. 하지만 IPT(미국)사무국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왔다. 당시 IPT 사무국에서는 대기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출국한 한국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인 전원 합류불가를 결정하였으나, 재심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나이, 평화운동경험, 회화능력, 유사시 대처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적합자에게만 IPT 합류를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지원연대 활동가인 강은지가 한국팀의 독단적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여 일단 처리하였고 현지에서 직접 IPT와 이야기 하는 것으로 IPT의 문제제기는 넘어갈 수 있었다.

2월 22일 지원연대는 '2.22 반전평화 행동의 날' 을 주최하고 당일 오후 2시에 이라크 전쟁 찬성 국가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고, 6시까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6시 이후 반전평화 거리한마당을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우천 관계로 보류하였고 당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박기범, 이윤벽, 임종진, 최혁)을 출국시켰다.

2월 27일 여성해방연대와 함께 '2.27 반전평화 여성공동 행동의 날' 행사를 같이 하고 28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반전평화 거리 한마당 STOP THE WAR' 집회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 집회를 담당했던 또 한 측인 '효순이 미선이 여중생 범국민 대책위원회' 측과 장소와 시간 문제로 사전에 잘 협의되지 않은 채로 행사가 진행되어서 범대위측에 사과문을 발송하는에 피소도도 있었다.

계속되는 반전 집회 주최와 반전평화팀 출국 지원과 지원, 쏟아지는 언론의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업무는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가는데 상근하는 활동가가 부족하여 사무국을 확대 증원하였다. 국제 교류 및 외국 단체 연락 담당에 이정현씨가 사무총괄에는 염창근 사무국장이 국내 반전활동 담당에는 전국

학생 협의회, 여성해방연대, 사회당 반전특별위원회, (가칭)전쟁없는 세상 나동혁씨가 맡아주었고 홈페이지 담당에는 시민의 신문 권용운님이 언론 및 홍보담당에는 염창근, 사회당 반전특위의 박윤기, 여성해방연대의 소란, 환경운동연합의 손성희씨가 담당하게 되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전쟁의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지원연대는 4진 출국 준비와 반전평화 캠페인, 반전 여론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3월 5일 현지에서 개전이 확실시 되면서 현지의 반전평화팀이 개전이 되었을 시에 이라크에서 요르단으로 옮겨서 난민 구호 캠프를 차린다는 원칙을 정했고 지원연대에 4진 출국을 보류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4진 참가자의 강력한 희망으로 3월 6일 4진(배상현, 유은하, 이해종, 임영신, 주재일, 최병수)은 각 단체 및 개인들이 모아준 반전 평화 엽서, 그림, 편지, 현수막 등과 각종 반전 시위 물품을 가지고 요르단으로 출국하였다.

3월 11일 은국, 허혜경 팀원이 귀국 하면서 인천 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지의 상황과 실상을 이야기 하였고 같은 날 신촌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지속하였다. 14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이에 대한 항의 성명과 청와대 항의 민원신청을 냈다. 그 와중에서 6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그리고 3월 1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전 평화 집회를 하였고 귀국 팀원 은국과 허혜경씨 강연회를 가졌다. 17일 부시의 ‘최후 통첩 48시간’ 이후 사실상 개전 임을 판단하고 지원연대 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체계를 수립하고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난민 구호활동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3. 이라크 전쟁(3월 20일 ~ 4월 11일까지)기간 활동 정리

1) 이라크 현지의 활동

(1) 첫 번째 공습, 그 이후

20일 새벽 현지 시각 5시 30분 미군은 공습을 시작한다. 이로써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시작되었다. 당시에 이라크에 남아있었던 팀원은 배상현씨가 휴먼셴즈 일원으로 한상진, 유은하씨가 IPT 일원으로 남아있었다. 당시 첫 공습이 있었을 때 모습을 유은하씨는 3월 21일 일지를 통해서 묘사했다. “3월 20일 새벽, 첫 번째 바그다드 공습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짐들을 방공호로 내려놓았는데, 그리고 한상진 선생님 방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30분쯤 누웠을까 우웅~~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와 폭음,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깨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나 보다 하며 깨었는데 하늘에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얼른 창가로 나갔더니 하늘 곳곳에서 번쩍번쩍, 여기저기 폭음, 땅에서의 응사 소리, 폭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자동차들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귀미 더 슬프게 들리고, 길거리 개들도 어디론가 도망칩니다.”

폭격 당일 휴먼 셴즈의 일원으로 발전소에 배치 받았던 배상현씨는 오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였지만 오후에 발전소에서 철수하여 한상진, 유은하와 합류하게 된다. 미군의 첫 공습에 대해서 배상현씨는 3월 22일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월 20일 새벽 1시, 일찍 잠에서 깨었다. 예상대로라면 4시쯤 공습이 있을 것이다. 4시가 지나자 간절히 바랐던 맘이 이뤄진 것일까 해서 좋아했는데 5시 30분 공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바랐건만.... 발전소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침을 깨우는 포탄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멀리 화염에 휩싸인 곳이 보인다. 이 곳에 일하는 아흐마드에게 물어보니 남바그다드 쪽일것이라고 한다. 약 40여 대의 미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뿌려댄다. 이라크 쪽의 대공포 대응도 있다.....곧 이곳으로 닥칠 거라며 이곳 관리인들이 방공호로 들어가며 부른다. 방공호에는 1평 남짓 되는 방이 2개가 있고 그 중 하나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사다리 통로가 있다. 폭격은 한 시간 가량 계속되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은하씨는 CPT⁸⁾ 소속 참가자들과 함께 알 와쓰비 정수처리시설 자원배치에 참가하

8) CPT(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 평화사역팀) : 성격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적 갈

였다. IPT 쪽으로 결합한 배상현씨도 유은하씨가 있는 정수 시설에 방문하고 그 캠프에 동참하려 했다. 3차 공습이 있었던 21일 밤과 22일 새벽의 공습에 대해서 배상현씨의 3월 22일자 일지에 따르면 “저녁 8시 30분, 3차 폭격이 시작되었다. 서둘러 사진기를 들고 현장을 담기 위해 창가로 갔다. 티그리스강 건너편으로 화염에 휩싸인 도시가 보인다. 호텔 뒤쪽으로도 폭격소리가 들린다. 서둘러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돌리고 현장을 담았다. 비록 멀리였지만 엄청난 폭발들이 이어졌다. 어제의 잠깐 폭격으로 37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새벽 2시 20분) 간간히 들리는 폭격이니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부시 놈에 의해 죽어갔는지...눈물이 흐른다....”

(2) 이라크 정부의 감시와 통제 - 각 국의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추방명령

공습의 정도가 높아지고 빈도가 늘어감에도 각 국의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감시는 심했다. 3월 22일 공습상황을 사진 촬영 한 배상현씨도 사진 촬영 한 것이 들통나서 호텔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상진 씨는 “.....우여곡절 끝에 배상현씨를 찾아서 만나게 되었다. 배상현씨는 휴먼셰이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IPT와 함께 있으면 안되었지만 일단 IPT 숙소인 알 파날 호텔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배상현씨가 폭격광경을 사진에 담기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걸려서 호텔에서 추방되어서 정수장으로 빼돌렸다. 당시 우리는 고아원 병원동지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CPT사람들이 이십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되는 사전 교육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진을 찍은 것이 들통이 나서 들어온지 이틀만에 단체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 했다.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부터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대부분은 요르단에서 활동하고 이라크에는 한상진, 유은하, 배상현씨는 IPT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3월 24일 IPT는 숙소인 알 파날 호텔에 모여서 전체 회의를 통하여 현재 있는 인원을 세 팀으로 분류해서 한 팀은 주요 폭격지역을 다니면서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른 팀은 병원등을 돌아보고 나머지 팀은 고아원에 가기로 결정한다. 유은하씨와 배상현씨는 병원팀으로 편성되어 활동했다.

3월 28일 바그다드 내 정부 전화국이 폭격을 당하면서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당시 날짜의 배상현씨의 일지에 따르면 “현지에는 지금 전화국이 폭격당한 관계로 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외부로의 통신은 물론이고 시내안에서의 전화도 끊기고, 숙소의 내선정도만이 됩니다. 그래서 메일은 물론이고 전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이 끊긴 다음은 전기, 그 다음은 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IPT 내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람지’ 라는 분도 통신을 위해 팔레스타인 호텔에 있는 기자들에게 갔던 게 발각되어 3일 내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라크에서 조사활동을 지속하던 배상현씨는 3명이 기록한 전쟁 보고서를 들고 암만으로 나왔고 IPT 내부에서도 이라크 정부에 의한 4명의 추방명령에 따라 토론을 통해서 누가 나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하다가 그 중 한상진씨와 유은하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한국인이 한명 남았으면 좋겠다는 결정에 의해 유은하씨가 남기로 되었고 유은하씨는 계속 정수장에서 활동을 지속하였다. 배상현씨는 3월 29일, 한상진씨는 4월 1일 전쟁터 이라크에서 빠져나와서 요르단으로 향하였다. 현지에는 유은하씨 혼자 남아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는 현지의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부족함과 전시상황이 빚어낸 결과로 인하여 생긴일이였다. 29일 CPT 7명(새로 들어온 4명 포함)과 IPT 2명과 배상현씨와 두명의 일본기자는 이라크 정부에 의해 추방명령을 받고 이라크에서 나가게 되었다. 특히나 새로 들어온 CPT 멤버들은 미국 시카고에서 한달 정도 훈련받으며 준비하고, 요르단에서 일주일 정도 비자를 기다린 끝에 이라크에 들어 온지 3-4일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유는 아무 연락도 없이 4시간 동안 이라크 정부의 감시자 없이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다음날 이라크 정부는 다시 4명의 멤버에 대한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 중 IPT 통신 담당인 람지와 한상진씨 그리고 유은하씨와 IPT 멤버인 리자 네주르였다. 이유는 전시상황이

동해결방법과 평화의 중요성을 몸소 증거하기 위해 세계의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평화를 위한 연구, 교육, 중재, 시위 등 다양하고 직접적인 평화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실제로 IPT 인원중에 절반은 CPT 멤버였다.

빛어낸 결과였다. 당시 람지의 경우는 바그다드내 통신망의 두절로 인하여 인근 호텔에 감시자없이 통신을 이용하기 위해 간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고 한상진씨와 유은하씨 같은 경우에는 폭격장면을 사진 촬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명은 크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당시 IPT와 CPT 멤버들의 전체 인원은 총 20명에서 30명 사이였다. 이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관리는 전선이 미국의 일방적 우위에 있음에 따라 점점 힘이 들어졌고 이에 대한 평화운동가들에게 대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3) 박기범 팀원의 재 입국,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 봉사활동

4월 2일 요르단에 있었던 박기범씨는 요르단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한 달 기한인 특별 휴먼쉴즈 비자를 얻어서 한국인으로는 혼자 있었던 유은하씨와 합류하게 된다. 4월 4일 미군은 바그다드 공항(바그다드 중심가에서 5킬로미터 정도 외곽지역)까지 진출하였고 이라크는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된 상태가 계속되었고 거센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박기범씨가 합류하게 되면서 유은하씨와 박기범씨는 예전에 박기범씨가 방문한 적이 있는 바그다드 내에 있는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Missionary of Charity)에서 장애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매일 밤 폭격이 시작되면 숙소(알 파나알)에서 방공호로 대피해서 생활하기를 반복했던 유은하씨와 박기범씨는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한다. 당시 유은하씨의 4월 4일자 편지에 따르면 “..... 수녀님의 안내를 받으며 아이들이 있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에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1미터 높이의 침대 위에 누워 있거나 앉아있는 아이들을 얼굴을 보면서 ‘너희들이었구나. 나를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이들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게 너희 때문이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후 미군이 바그다드 시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박기범씨와 유은하씨는 숙소와 방공호를 오가면서도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에 하루 두 번씩 방문해서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하였다.

(4) 미군의 바그다드 입성 - 막바지 반전활동

4월 7일 바그다드 내에서 시내 교전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도시 한가운데를 티그리스 강이 가르고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알 루사파 지역 그리고 강의 서쪽에는 알 카르호 지역이라 한다. 며칠째 알 루사파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미군과 이라크 군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지만 현지의 분위기는 가까운 시간 내로 미군이 바그다드 전역에 진군 할 거라는 추측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IPT 회의가 소집되었고 이제 현실적으로 미군이 코 앞에 있고 며칠 내로 바그다드 전체를 접수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응 행동방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유은하씨의 4월 8일 일자 편지에 따르면 “..... 오늘 회의의 초점은 성명서 내용 중 ‘Confront(직면)’ 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action(행동)’ 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4월 9일 바그다드는 미군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IPT 숙소가 있는 알 파나알 호텔까지 미군의 장갑차가 들이닥쳤다. 유은하씨와 박기범씨를 포함한 IPT 회원들은 ‘Courage for peace..... Not for war(전쟁을 위한 용기가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와 ‘Life is Sacred(생명은 소중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알 파나알 창가에 걸고 미군 장갑차 정면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시위를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유은하씨의 4월 9일자 편지에 따르면 “...탱크들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호텔 앞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 앞에서 있던 마리넬라 씨도 ‘미군이 왔어.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하고 탄식하며 팔레스타인 호텔쪽으로 갔습니다. ...IPT 멤버들이 모두 반전구호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 있었습니다. 저도 ‘War is not the answer(전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라고 써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현수막을 든채 탱크 앞으로 갈려던 찰나였습니다.우린 2층 방으로 올라가, 206호부터 208호에 걸친 긴 현수막을 들고 발코니에서 있었습니다. 탱크와 마주보면서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이라는 뜻의 영어와 아랍어가 써여진 현수막을 들고 2층에 우두커니 선 채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박기범씨와 유은하씨와 IPT 회원들은 숙소앞 도로에 최병수 화가의 작품은 큰 걸개그림 ‘야만의

등지' 를 깔고 그 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당시 주변에 있던 미군들은 1인 시위를 제지 하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한국인인 유은하씨와 박기범씨에게 자신도 한국에서 근무한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등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미군 해군 장교는 IPT 홈페이지에 IPT 활동을 조롱하는 듯한 메일을 보냈다. 이에 한 평화운동가는 아주 길게 답변을 보냈고 이 내용을 인쇄물⁹⁾로 만들어서 근처에 있는 미군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한다.

4월 11일 저녁에 그 때까지 남아있던 휴먼셴즈 멤버들과 박기범씨와 유은하씨와 IPT 멤버들은 마지막 반전 집회를 미군 탱크에서 불과 2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팔레스타인 호텔 옆 주차장에서 가졌다.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이라크 인들은 이슬람과 아랍의 건재를 과시하면서 “알라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 를 외쳤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마지막 반전집회는 마무리 되어 갔다.

2) 요르단 암만에서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

(1) 요르단 캠프 활동

미국의 개전소식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암만 숙소 알 아미라에서 최초로 접하게되었다. 당시 임영신씨는 3월 20일자 일지를 통해서 그 날의 기억을 표현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침 - 새벽 4시 요르단의 새벽, 전쟁이 터졌다면 다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CNN은 이미 마치 전쟁 쇼를 보도하듯이 폭격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안전한 장소들을 찾아 바그다드의 하늘을, 텅빈 도심을, 터져 나오는 굉음을 담아내고 있다. CNN의 화면 너머 바그다드의 하늘을, 우리가 걸었던 그 거리들을 아직도 손에 온기가 가시지 않은 친구들이 잠들어 있을 집들을 본다. 화면 속에서는 이미 그들의 미사일이 바그다드 항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부시는 지금이 바로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할 그때라고 사담후세인의 목을 베어 내야 할 그때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다.....”. 개전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사로부터 현지 상황을 묻는 전화, 바그다드 안의 소식을 묻는 전화, 무엇보다 이라크 현지에 남았는 3명의 평화팀원에 대한 안부를 묻는 전화들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박기범씨는 3월 21일 일지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 “오전 오후를 통해 우리 팀원들은 어떤 일보다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우리라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곳 상황이 생생하게 한국으로 알려지기를 바랐다. 우리가 아는 한 가능한 만큼 이곳의 분위기를 전했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한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전화 취재 속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우리가 이곳에서 갖는 반전의 의지와 평화에 대한 바람이 왜곡되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위험마저” 간추리면 당시 현지의 반전평화팀과 요르단에 있었던 반전평화팀원들의 바람은 전쟁의 실상과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극과 참상을 알리기를 바랐고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한국의 언론과 매체들은 이라크에 남아있는 세명의 ‘한국인’ 의 안전과 전쟁의 소식만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언론이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해를 끼쳤던 점도 무시할 수 없었

9) 미군 해군 장교의 편지 “이 야만적 독재국가(이라크)를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폭탄을 떨어뜨린 후에, 당신들의 평화팀(IPT)에 기쁘게 합류하겠소”. 이에 대한 답장은 “우리 평화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석기시대로 돌려놓은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죽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더한 폭력사태를 유발시키면요? 당신의 편지는 사실 많은 전쟁에서의 소망이었죠. 하지만 살생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거랍니다. 독재자를 죽일 수는 있을 지라도,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진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과 분노, 죽음 그리고 또 다른 독재, 또 다른 전쟁, 더 많은 폭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라크에서는 50만 명의 어린이가 경제제재로 죽었어요. 어떻게 미국 정부는 독재자 한 명과 50만명의 목숨의 가치를 동일 시 할 수 있는 거죠? 평화를 거두려면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폭탄을 심으면 우리가 거두는 건 폭탄일 뿐이죠. 미국의 거대한 군비로 아프리카의 에이즈를 치료할 수도 있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과 음식을 줄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 학교랑 대학, 병원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정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 그에 대해 많은 팀원들은 우려를 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기로 한다.

당일 요르단 캠프의 반전평화팀은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임영신씨는 전쟁중단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였다. 개전이 되면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암만 캠프는 요르단에서 집회를 계속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전장이 눈 앞에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요르단에서 반전집회를 계획하는 그들의 가슴은 현지에 남아 있는 세 명의 평화팀원에 대한 걱정과 반전평화팀으로써 전쟁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전승로씨는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의 느낌을 토로하였다. 22일 한국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함께 요르단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군 파병반대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하고 집회를 가졌다. 그 다음날도 요르단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군 파병반대 시위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자체 계획한 집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요르단 현지의 집회도 계속 연대 참여하였다. 24일에 있었던 요르단 대학 집회도 참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도 참여하였다.

더불어 요르단 반전평화팀은 전쟁 전에 회의를 통해서 정했던 이라크 전쟁 난민 구호 활동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25일 요르단 암만 인터컨티넨탈 난민구호 활동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적신월사¹⁰⁾가 요르단과 이라크 국경에 설치한 난민캠프에 다녀오게 된다.

적신월사 옆에 있는 난민촌 캠프는 UNHCR에 의해 설치되었다. 적신월사의 난민촌 캠프는 이라크 난민을 위함이 아니라 이집트인, 수단인, 에티오피아인,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단기 캠프이고 UNHCR의 난민 캠프는 이라크 전쟁때 발생할 난민들을 위한 캠프였다. 당시 캠프를 방문했던 임영신씨는 적신월사에서 설치한 캠프에는 제 3국의 난민들이 꽤 있는 것을 보았는데 UNHCR의 캠프에는 그 곳에 있는 스텝을 제외하고는 이라크 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이상해서 그 곳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 담당자는 “당신 이라면 그 집과 고향을 떠나 이 사막의 텐트에 오고 싶겠나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전쟁을 피해 도망 나오는 이라크 난민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이라크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전쟁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가는 이라크인뿐이에요.” 라고 답했다. 당시 요르단의 일간지인 요르단 타임스 3월 25일자에 따르면 전쟁이 있기 이틀전부터 일 주일이 지난 시점까지 요르단을 통해 오천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임영신씨는 요르단 국경에 설치된 난민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의 난민구호활동을 생각하면서 3월 25일자 일지를 통해서 “..... 이 바람과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유엔이 만들어 낸 난민 캠프에 그들의 등을 밀어 넣고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양심을 안위하기 위한 유엔의 구호여서는 안된다고, 그들의 집과 도시를 부수고 광야에 서게 하는 폭력적 동정이어서는 안 된다고 사막의 바람 속에서 마음 깊이 다 집니다.”

(2) 한국군 파병

노무현 정부는 3월 22일 미국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에 한국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요르단에 있는 반전평화팀은 또하나의 전선(戰線)을 형성하게 된다. 요르단에 있는 반전평화팀은 요르단 현지에 있는 각국의 평화운동가와 함께 한국군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한 시위를 조직해 나간다. 또한 한국에서 국회 파병안이 빠르게 상정됨에 따라 27일 각 국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요르단 암만에서 파병반대의 메시지를 알렸고 그 날 저녁에는 요르단 한국대사관 앞에서 파병반대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가 끝난 후에는 시위에 참가한 각 국의 평화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Peace Coalition을 결성하였다. 이들 뒤 29일 요르단 반전평화팀은 현지인들(요르단 주민, 팔레스타인계 주민들), 각 국의 평화운동가와 함께 요르단 암만내에 있는 관광지인 로마극장 앞에서 한국군 파병반대 집회를 가졌다. 당시의 요르단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현지인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 되었고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요르단 정부와

10) 아랍지역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적십자 모양을 사용하지 않는다. 활동과 기능은 적십자 활동과 같다. 이름은 적신월 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 색 초생달 모양의 로고를 사용한다.

격렬한 투석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요르단 정부는 투석전이 있는 이 후 반전 집회를 강력히 통제하는 분위기였다. 기존의 요르단 한국대사관 앞의 집회가 아닌 요르단 암만의 주요 관광시설인 로마극장 앞에서의 시위는 직접 준비라고 기획을 맡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과 긴장감을 주었다. 당시의 상황을 박기범씨는 3월 29일자 일지를 통해서 “..... 뚜렷하지 못한 이런 저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오늘 집회를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것마저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는 오늘 집회를 해 보고 난 뒤 판단하기로 하고 말이다. 어쨌든 오늘은 큰 목소리로 외치며 규탄이나 항의를 하기보다는, 군중을 선동하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평화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죽어간 이라크 땅 사람들에게 참회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곳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다행히 집회는 평화롭게 요르단 정부와 큰 충돌없이 진행되었고 반전평화팀원들은 그 뒤로 지속적인 촛불시위를 요르단 현지인과 각국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4월 2일 한국군 이라크 파병 동의를 통과시켰다.

(3) 배상현, 임영신 국적 포기 선언

3월 30일 배상현씨는 이라크에서 빠져나와 요르단 암만 숙소로 그동안 이라크 현지에서 작성한 ‘전쟁의 기록’이라는 보고서¹¹⁾를 들고 합류하였다. 당시 3월 말 경에 한국 국회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를 두 번이나 연기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파병동의안 처리의 분위기는 높아져 갔다. 이에 배상현씨와 임영신씨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막기위해서 각각 4월 1일과 2일에 만약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 승인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언론을 통하여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한국 시민사회는 국적포기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4월 2일 배상현씨와 임영신씨는 한국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당일 한국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비행기 안에서 들은 임영신씨와 배상현씨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같은 팀원이었던 오김숙이, 은국, 이해종, 허혜경씨와 지원연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와대로 파병동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항의 서한만을 전달하였다. 국적 포기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언론이 국적포기를 하게 된 그 간의 과정과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국적포기의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기에 국적포기에 대한 논란이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한 파병반대의 맥락에서 논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배반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배은망덕이니 하는 비난으로 확산되었다. 하물며 진보진영에서도 배상현, 임영신의 국적포기 선언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임영신씨는 “한국에 돌아오는 와중에 생명을 버릴 수 없다면 생명다움에 버릴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어. 그리고 또다른 국가주의에 대한 분노, 국익에 대한 논의, 심지어 진보진영내에서도 파병을 하는 것이 국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을때 결국은 확장된 국가주의가 제국주의 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또 내가 당시에 이라크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이러던 와중에 국적포기를 선언했지. 그러면서 보수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지..... 평화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국가안보 이데올로기가 주는 국가주의, 이를 건드리는 평화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평화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지. 당시에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현실을 보는 듯 했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당시 국적 포기와 관련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임영신씨와 배상현씨의 정확한 입장은 4월 3일 날 발표한 성명서¹²⁾에 자세히 나와있다. 하지만

11) 부록 참조

12) 성명서에 따르면 ‘... 임영신씨는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을 어긴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한국 또한 파병을 통해 참여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영신씨의 국적 포기 선언은 UN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쟁을 도발한 미국, 영국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 협력하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거부입니다. 임영신 씨는 그러한 국가주의는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이며, 그러한 국가주의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배상현씨의 경우 자신은 포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소속단체에서

당시 언론과 인터넷상에서의 논쟁을 살펴보면 국적을 포기하게 된 배경과 한국의 이라크 전쟁 참여,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그 어떠한 주제나 이슈, 가치라고 하여도 국가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국가에 대한 나아가 국가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했을 때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의 시민사회가 반응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곳에서도 생산적 논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 이라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준엄한(?) 꾸짖음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엄청난 폭력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들이나 동성애자들에게 보이는 태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과 다르다고 했을 때 반응하는 엄청난 배제와 소외와 따돌림,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 폭력을 동반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무서울 정도였다.

(4) 이라크 재입국 추진

한 편 4월 1일, 요르단의 반전 평화팀 중 3명의 팀원이 이라크 재입국을 시도 하였지만 그 중에서 박기범 씨만 이라크에 입국하였다. 당시 팀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자를 받는 와중에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혁씨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비자 받았다는 것은 기적이었어. 당시 전쟁이 시작되고 한창 미군이 바그다드를 향하여 고속 질주를 할 때이고 매일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이 있었던 때 였기에 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런데 기범(박기범씨)이란 놈이 대사관에 매일 찾아가서 대사관 담당자 앞에 무릎꿇고 앉아서 계속 울면서 비자 내주라고 하는거야. 그것도 한국말로, 그렇게 3~4일을 울고 불고 하니깐 대사관직원이 감동을 먹었는지 비자를 내 주는거야. 하지만 초기에 6명이 들어가려 했는데 마지막에 기범이 혼자 들어갔지. 왜냐구? 내가 공작을 했지. 당시 너무도 위험했고 나는 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이었거든, 내가 각개 격파(?)로 다들 설득해서 요르단 국경에서 다시 되돌려 놓았지. 기범이만 빼고”

4월 5일 요르단 캠프의 반전평화팀은 회의를 통해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체계를 재구성하고 향후에 상황동등을 정리하였다. 반전평화의 단체에서 이라크 지원 단체로 변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3)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활동

(1) 개전(開戰) 이 후 반전시위 중심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일인 20일 지원연대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사회당과 함께 ‘이라크 침공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고 그동안 진행한 항의서한 서명을 미대사관에 전달하고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1인 시위는 미대사관앞에서 23일까지 계속되었고 22일에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한마당 STOP THE WAR 2’를 진행하였고 이 후 종묘까지 행진하여 반전평화 촛불대행진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3월 24일 한국군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어서 23일 국회 앞에서 파병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철야농성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24일 오김숙이, 이해중, 전승로, 최병수 씨 귀국 기자회견을 오후 1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고 이 후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고 국회앞 촛불시위에 참가하였다.

다음날 한국군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 상정에 맞추어 반전평화팀원인 은국과 현중은 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진행하였다. 당일 파병동의안 표결 처리는 연기되었다. 26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의 신성국 신부와 서강대 학생인 김하운씨가 출국하였다. 지원연대는 다시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원연대는 마로니에와 광화문에서 계속 촛

반대하고 있어 지금 국적포기와 관련하여 소속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국적 포기가 불려올 수 있는 논쟁과 영향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국적 포기 관련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불 시위를 주도했고 이라크에서 찍은 사진물들을 전시하였다.

3월 31일 지원연대는 여성해방연대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다. 그 회의를 통하여 그 간 지원연대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약평을 하고 이후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활동계획들을 수립했다. 개전 이후 지원연대는 기존의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활동에서 국내 여론확산활동과, 국내 반전활동, 연대조직활동에 비중있게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연대의 체계도 이러한 활동에 비중을 두면서 개편된다. 기존의 사무실과 상황실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촛불시위 진행팀과 거리 한마당 기획단이 새롭게 구성되고 난민구조 기획단을 구성하게 된다.

4월이 되면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국회 앞 철야 노숙투쟁에 결합하게 된다. 하지만 2일 파병동의안이 표결처리되면서 국회 앞에서 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다음날 3일 요르단 암만에서 배상현, 임영신 씨가 귀국함에 따라 귀국 기자회견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하고 청와대로 가서 항의방문 및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다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하였다.

(2) 명동성당 천막농성

4월 7일부터 한국에 귀국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다. 이에 마로니에공원에서 계속되었던 촛불시위도 명동성당으로 옮겨서 진행하였다. 명동성당에서 시작한 천막 농성은 14일 부활절 행사로 인하여 향린교회로 옮겨서 진행하였고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가 19일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결정되고 난 후 한국 시민사회내 분위기는 급반전하였다. 반전평화의 분위기는 자취를 감추고 더군다나 국적포기논란이 일면서 그간 함께 했던 여러단체들이 떨어져 나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지원연대 사무국장인 염창근씨는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전부터 그동안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개혁국민정당은 쪽 빠져나갔고, 그때부터 여성해방연대 상근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4월 9일 바그드드 함락 직전에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여러 천주교 단체와 재야 단체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전쟁이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빨리 종료가 되어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때 4월 2일 한국군 파병이 되고 나서부터 국익 논쟁이 있었고 9일 바그다드 함락이 되고 나서는 전쟁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원연대 내부에서 서로가 많은 갈등을 가져왔었다. 그 때부터 이라크에 대한 반전 분위기는 거의 끝나고 대부분의 언론이 구호사업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내부에서의 분분한 소리가 나왔고 그러므로써 서로가 많이 다치기도 했다.”

미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실질적인 점령선포를 계획할 때 쯤해서 요르단에 있던 반전평화팀은 이라크 민중지원사업으로 팀의 성격을 전화(轉化)시킴에 따라 한국의 지원연대도 같이 활동의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4. 이라크 전쟁 후(後) 활동 정리

1) 이라크 민중지원팀 활동

(1) 의료지원 및 약품지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을 통하여 고통받을 이라크 민중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고민은 계속 가져 왔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난민구조사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되어갔고 요르단에서 이라크 인들을 위한 난민구조사업은 그 필요성을 잃었다. 더구나 이라크 국경은 4월 10일 경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취재진들이 이라크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프리랜서 기자이자 사진작가였던 조성수씨는 위성전화를 이용하여 한국 이

라크 반전평화팀원이었던 임영신씨에게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내의 병원들이 마취제가 없어서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하고 있는 실상을 보고 긴급지원연락을 요청했다. 그에 임영신씨는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진행했던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 성금 모금 캠페인팀과 상의해서 서둘러 출국을 준비하였다. 4월 12일 임영신씨와 한겨레 캠페인팀,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의료진과 함께 이라크에 의료,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국했다. 이 당시에는 팀 차원에서 이라크 민중사업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긴급 구호형식으로 이라크에 들어간 경우였다. 15일 이라크에 입국한 임영신씨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스태프와 한겨레 캠페인팀 스태프는 현지에 남아있던 유은하씨와 합류한 후 유은하씨는 장애인 및 아동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임영신씨 그룹은 의료지원과 의약품 지원을 위하여 병원 및 빈민지역을 조사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임영신씨는 1차 의약품 전달을 위한 현지조사 보고서¹³⁾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바그다드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약탈로 문을 닫은 상태, 약국도 마찬가지이다. 의료진들은 폭격, 약탈과 함께 거의 모든 병원에 나타나지 못했고 현재 바그다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약간의 병원들은 의사 두, 세명이 응급실을 운영하든, 전체 병원을 운영하든 발런티어 형태로 의료진을 재편하고 자체 치안을 위해 민병대 혹은 미군의 호위를 받는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연결된 일부병원에서는 임영신씨가 가지고 온 의료지원과 의약품을 시급히 필요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큰 병원은 치안과 의사들의 교통수단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차 조사를 위해서 5개의 공공 병원을 조사한 후 사담정형외과에 1차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17일 한국에서는 한상진, 성혜란, 오수연씨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과 의약품을 싣고서 이라크로 입국하였다. 한상진씨와 오수연, 성혜란씨와 합류하게된 임영신씨는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서 서로 팀을 나누어서 바그다드 시내의 큰 병원, 공공병원 보다는 바그다드 내 빈민지역의 조그마한 병원, 그리고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다. 이미 바그다드 시내의 큰 병원들은 세계적 규모의 NGO 단체와 구호단체 의료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의약품 및 구호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곳에 중복 지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조사작업과 더불어 현지의 단체들과 정보교류 및 의견교류를 위해서 NCCI¹⁴⁾(이라크 NGO 협의기구)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팀의 통역을 맡았던 아마르¹⁵⁾를 통해서 바그다드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뉴바그다드 지역의 빈민지역의 조그마한 헬스센터를 소개받는다. 그 곳은 모스크¹⁶⁾에서 전쟁이 끝난 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이라크 민중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었던 곳이다. 모스크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스스로 민간 수비대를 조직해서 치안과 보안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도 대부분 자원봉사형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었다.

당시 조사작업을 같이 하고 있던 오수연씨는 당시의 뉴바그다드 지역의 조그마한 헬스센터를 보고서는 그 곳을 지원거점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에 바그다드 내)병원을 많이 돌아다녔지만 당시 외국단체가 많이 들어와서 큰 병원에 약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하지 않았어. 당시 유니세프, 까리따스. 등등...많은 해외단체들이 병원에 몰려 있어서 우리같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아마르가 더 가난한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깐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같이 조사했던 팀원들도 그 곳 헬스센터의 사정을 본 후 이 곳에 의약품과 의료지원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해외 다른 엔지오 단체들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모스크 영향력이 지배하

13)바그다드리포트(4월12-14일,임영신), 반전평화팀 홈페이지(<http://iraqpeace.ngotimes.net>)참조

14) 공식명칭은 NGOs Coordination Committee in Iraq, 당시 참여단체는 Premiere Urgence, Islamic Relief Agency, Life For Relief & Development, Italian NGO Consordium, Medecins du Monde FRANCE, Medecins Monde Greece, Medicines du Monde spain, Aid Medicins International, Medecins Sans Frontieres Frans, Medecins Sans Frontieres Belgium, Solidarity for Peace Making and Sharing(Korea)

15) 정식이름은 Ammar al Zubaidy 이고 무슬림 쉬아파 중간 종교 지도자급이고 나이 30세의 젊은이이다. 아마르는 이 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에 핵심 현지 파트너가 되었다.

16) 일반적으로 모스크는 무슬림(이슬람 신자)들의 기도를 하는 사원이자 종교의식을 실행하는 회당을 뜻한다. 종교와 생활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무슬림 사회에서 모스크는 강력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는 곳에 의료서비스는 나중에 모스크에 권력을 집중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이에 오수연씨는 그러한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고 뉴바그다드 지역에 한국의 의약품과 의료지원, 더불어 앞으로 계속될 민중지원사업의 거점을 마련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오수연씨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 때 다른 엔지오 단체들과 모임(NCCI)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곳의 단체들은 안된다고 했다. 이유는 이라크 인들이 자구노력으로 문을 연 조그마한 헬스센터가 모스크 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리고 모스크에 의해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생각은 달랐어. 이 곳의 이슬람은 생활이기에 배제할 수 없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민중들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 곳이 한국팀의 활동지가 되었지.”

(2) 장애 아동 시설 지원(다르 알 하난 Dal Al Hanan - 장애고아원, 알 누르 Al Nur - 시각 장애인학교)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유은하씨는 그전까지 봉사하던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지원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유은하씨는 현지 통역인 살람과 평화운동가 3명(IPT의 마틴과 이탈리아인 피에트로와 마리넬라)과 함께 우타이피아 거리에 있는 다르 알 하난 장애고아원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다르 알 하난에 대한 첫인상을 유은하씨는 4월 22일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갈 때만 해도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 디딘 발걸음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말만 장애인, 고아들을 위한 보호소이지, 그저 ‘머물러 있는’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저 자기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거나 아무 데나 누워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전쟁 중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직원들 대부분이 일하러 올 수 없었고 이들 월급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벌써 두달째 체불상태라고 하니 현재 직원 14명 정도가 머물러 있는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한 마디로 제대로 운영될길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설의 심각함을 깨닫고 유은하씨는 이 곳에서 매일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직원들의 업무와 근무시간, 여기 수용되어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이름, 나이 상황을 파악하기로 하고 기본 서류들도 다시 작성한다. 그리고 이 곳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물품 등을 목록화하여 외국 언론단체들이 올 때마다 그들과 인터뷰하는 동시에 이 곳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은하씨 개인으로 지원된 모금을 이 곳의 운영자금으로 재정지원 하기 시작한다. 재정지원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예전 직원들이 시설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또 몇 명의 자원자들이 찾아오고 기존 매니저도 복귀를 하면서 시설은 조금씩 복구되기 시작했다. 또한 외국 언론들이 찾아오고 한국의 일간지, TV 등에서 방문하면서 후원금과 약품들이 전달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 알 하난은 전쟁 전의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빠르게 복구되었다.

4월 29일 유은하씨는 현지 파트너인 살람과 함께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 첫 방문하게 된다. 처음 알 누르를 방문했을때에는 문이 닫혀있었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과 이 곳의 상황을 이야기 받고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그 곳 매니저와 몇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 상황을 살폈다. 알 누르 시각 장애인 학교는 전쟁 전에는 직원과 학생을 포함해서 160명이 있었는데 전쟁 중 약탈을 당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학생들도 없고 직원들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매니저와 몇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갖는 정도였다. 그래서 유은하씨는 학교 상황에 대해 보도 및 지원요청 자료를 작성하고 IPT의 연락담당이었던 람지와 BBC 기자와 구호 NGO 단체에 전달하고 기자들이 많은 있는 알 파날 호텔과 다르 알 하난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일 주일에 3일은 알 누르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다. 그래고 알 누르 학교에 재정지원을 시작했고 조금씩 직원들이 학교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설도 복구하기 시작했다. 5월 22일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유은하씨는 6월 23일 다시 다르 알 하난 과 알 누르에 복귀하여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8월 말경까지 봉사활동을 지속했다. 유은하씨는 6월 23일에 복귀하면서 반전평화팀과는 별도로 개인지지 그룹과 함께 활동하기로 밝혀 그 이후는 팀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까지도 유은하씨 그룹은 이라크 장애 시설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격적인 이라크 민중지원사업

4월 한 달 가량의 조사작업을 통하여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팀의 이름을 이라크 민중지원연대로 바꾸고 본격적인 이라크 민중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혁씨는 4월 30일 장문(長文)의 이라크 민중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최근의 이라크 상황과 제안 전까지 반전평화팀이 했던 일, 그리고 향후 반전평화팀의 진로에 대해서 설명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최혁씨는 반전평화팀에서 민중지원팀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서 이뤄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진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반전평화팀은 이제 마무리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라크 전쟁 반대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반전평화 활동을 수행했던 한시적인 반전평화팀은 이제 소명을 다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에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낸 반전평화팀은 이제 다음 단계의 더 큰 반전평화운동의 디딤돌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맡김하게 끝내야 하는 거지요. 저는 그 마무리를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해소 선언과 이라크 민중지원사업팀을 새로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정난 그 시점에서 팀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요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민중지원팀 사업의 기본 관점과 원칙을 다음과 명확히 하였다. 첫 번째 다른 구호단체와 구별되는 반전평화의 관점이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을 사후적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구호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방법적으로 미군과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이라크 민중의 삶의 재건은 이라크 민중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그들이 전쟁의 피해와 고통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파괴된 문화와 공동체를 복구할 수 있게 옆에서 친구의 입장에서 아무런 사심이나 조건없이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의 원칙으로는 국제기구나 정부,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앞세우는 기구나 단체와는 연대하거나 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팀의 역량과 한계를 고려해서 지원대상지역은 바그다드 남동쪽에 위치한 뉴바그다드 지역의 다섯 개 빈민지역으로 한정하였고 사업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하고 이는 제정의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결정하기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제안하였다. 먼저 의료지원사업, 청소 등 보건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지원사업등이었다. 그리고 사정이 가능하다면 미군에 의한 전쟁범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제안하였다.

5월 한 달은 주로 한국에서 온 보건의료연합소속의 의사들의 의료지원활동에 도움을 주고 팀원 중 한상진씨와 오수연씨는 전쟁범죄조사를 위한 이라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였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연합소속의 의료진은 뉴바그다드 내 5개의 빈민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그리고 의약품도 지원하였다. 지역 이라크 민중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오수연씨는 5월 5일자 일지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묘사했다.

“보건의료연합의 내과의 송광욱, 한의사 이용욱, 교수정 세 의사 선생님들은 뉴바그다드 알 마시단 지역에 있는 ‘알 몬타다 보건소’에서 진료하셨습니다. 의사가 앓을 자리마저 없을 정도로 진료실은 북적거렸으며, 복도를 가득 메운 대기 환자들은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문을 열어젖히고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어림잡아 이틀동안 두 분 한의사는 250명의 환자를, 송 선생님은 100~150명의 환자를 보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의사가 아닌 저희들이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들(이라크 민중)의 얼굴에 가득 어린 기대감만은 누구에게도 역력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신종 의료기술, 신비로운 동방 치료법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느낀 것은 그 이상입니다.”

6월 초순에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최혁씨는 본격적인 이라크 민중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2명과 스태프 1명과 함께 이라크로 향하였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민중지원팀은 계획된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쟁 이후 국가 행정력이 마비된 상황에서 뉴바그다드 지역 내 빈민지역은 쓰레기로 마을 전체가 뒤덮여 있었다. 시급히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차량과 인부를 고용해서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지인과 상의해서 쓰레기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에 나온 결과가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어린이 지원사업으로는 이라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현지 파트너인 아마르와 함께 부지

와 공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알 마시텔 헬스센터(보건의료연합 의료진이 진료를 했던 곳)내에 비어있는 건물을 이용하여 그 곳에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유은하씨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다르 알 하난 시설과 알 누르 학교는 팀의 상황과 한계를 고려하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팀의 주력사업은 이라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만들기과 쓰레기 수거 활동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6월 14일, 그리고 26일 이라크 민중지원에 합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스태프들이 출국하였다.

7월부터는 자원봉사자 중 의료지원단으로 온 구철민씨와 자원봉사자 정희영씨 그리고 천주교 지원연대 김 재복수사와 팀장 최혁씨가 동양 의료지원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알 마시텔 헬스센터와 알 후리야 헬스센터에서 동양의료서비스 지원활동을 하였다.

6월 말 6명의 자원봉사자와 스태프가 합류하면서 어린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탄력을 받아 진행되었다. 더불어 인근 빈민지역 유아들을 위해서 식량지원사업을 천주교 평화연대의 재정과 자체 재정을 이용하여 유아용 분유를 5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팀의 재정 한계로 현지에서의 활동은 7월 말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7월 중순까지 알 마시텔지역에서의 민중지원활동을 끝내고 그 이 후 이라크 남부지역 바스라 지역에 가서 민중지원활동을 하기로 6월 말에 팀의 활동계획을 결정한다.

7월 5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공사를 마무리 하고 당일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당일 백명이 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몰려와서 팀에서 준비했던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으면서 행사가 끝나자 팀원들에게 물려가 '언제부터 문을 여는지? 그냥와도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등등을 물어보면서 큰 관심을 가져주었다. 하지만 개관을 하고 4일이 지난 후 그 곳에서 놀던 아이들 중 몇 명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시설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팀원중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박기범씨와 이동화, 전승로, 성혜란은 좀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재공사하기를 제안했고 팀에서 받아들여졌다. 재공사는 팀이 공식적인 현지 활동을 끝낸 후에도 계속되어서 다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의 문을 연 시점은 8월 중순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라크 민중지원연대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재공사를 진행하는 팀원을 제외하고는 7월 21일 알 마시텔 민중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이 후 남부 바스라 지역으로 가서 의료지원활동을 한 후에 29일 현지에서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 후 남은 사람은 본 연구자(12월까지 어린이 공간 운영 및 이라크 현지상황 모니터 역할을 함), 김 하운씨(9월 초까지 이라크 사회기반시설 운영 조사작업을 진행)였다.

(4) 팀원들의 복귀 이 후

본 연구자와 함께 남은 김하운씨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 실태 조사보고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남았다. 김하운씨는 이라크내에서 전기가 계속 단전(斷電)되는 이유와 기름이 이라크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바그다드내 유대인들의 활동, 새롭게 이라크에 도입된 카운슬 제도¹⁷⁾와 미군의 씨 맥¹⁸⁾들의 활동과 미군들에 대한 이라크 주민들의 인식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9월 초에 한국으로 복귀하였다.

연구자는 8월 말까지는 재공사에 매달렸다. 초기 공사는 대부분 현지인들에게 자재구입부터 공사까지 맡겨서 이루어졌지만 재공사는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에도 직접 관여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주로 이루

17) 2003년 6월 미국의 CPA(연합행정처)의 계획에 의해 조직된 의회제도.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Neighborhood Interim Advisory Council과 그 위에 Distric Interim Advisory Council, 그리고 그 위에 City Interim Advisory Council로 구분된다. 구성원들은 미군에 의해서 지정되고 최하위의 네이버후드 카운슬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를 받아서 구성하기도 한다.

18) CIMAC(Civil Military Assistant Center)은 대외 이라크 업무 담당 부서로 주로 이라크 council 담당자와 함께 일을 하는 조직이다.

어진 재공사는 야외공터 지붕공사, 기존의 연못자리를 잔디를 깎 정원으로 만들고, 주위에 나무를 이용해서 울타리 설치작업, 그리고 수영장 공사등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수영장 공사는 현지의 아이들이 가장 원했던 작업이었지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작업이었다. 이라크의 사막날씨는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먼지와 주위의 모래들은 쉽게 수영장 수질을 더럽게 하고 주변에 전혀 배수로 시설이 되지 않았고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터를 이용하여 계속 물을 빼 내고 다시 유입을 시켜야 하는데 이라크 전력사정이 하루의 절반은 단전(斷電)인 상태에서 그 것또한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서 주변의 모래와 먼지는 수영장 인근에 블록을 쌓아서 막고 배수로 시설은 따로 만들지 않고 배관호스를 이용하여 조금 먼 곳으로 물을 빼 내고 수질은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이용하여 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고 수(手)작업으로 빼서 이틀에 한 번꼴로 물을 갈아 주었다.

이는 8월 말이 되어서야 수영장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은 오전에는 현지인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인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이용하였다.

9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이라크 2차 파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구자는 현지의 파병반대여론을 알리는 데 활동을 집중하였다.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한국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9월 말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10월 초 한국의 조사단에게 이라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자 3일동안 이라크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고 한국에서 온 기자들에게 현지의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던 중 10월 18일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였고 당시 지원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시민조사단 파견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에 지원연대는 이라크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였고 그들과 함께 11월동안 조사작업과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11월 말에 조사단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약 10일간 연구자는 이라크에 남아서 놀이방 운영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12월 12일 놀이방 운영을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2) 이라크 지원연대 활동

초기에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연대하여 이루어진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도 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대부분의 단체와 개인들이 자신의 현장으로 복귀하여서 지원연대는 전쟁 전, 중에 했던 활발한 활동들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어가지 못했다.

4월 말 현지에서 이라크 민중지원연대로 팀이 변화하면서 한국에서의 지원연대도 ‘이라크 평화와 이라크 민중지원을 위한 연대(이후 이라크 지원연대)’로 변화되었다. 현지 이라크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사람들을 준비해서 보내고 지속적으로 이라크 현지의 상황을 한국에 알리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 나갔다. 이라크 민중지원활동자들을 4팀으로 나누어서 1차(5월 6일 - 김하운), 2차(6월 5일 - 목지영, 이동화, 이상래), 3차(6월 14일 - 박기범, 성혜란), 4차(6월 26일 - 강인화, 구철민, 오수연, 이계순, 장혜진, 정희영) 총 12명을 이라크에 파견하였고 웹소식지 ‘이라크 통신’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조금씩 활동등을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간 이라크에서 보내왔던 편지들을 모아서 서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마무리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7월 중순 현지에서 활동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마무리 행사로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보고대회 및 평화심포지엄 및 문화제 - 2003 이라크, 전쟁과 평화’를 준비 기획하게 된다. 그리고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 발간 작업에 시작한다. 또한 천주교 인권 위원회의 도움으로 현지 이라크에서 팀의 파트너로써 함께 활동했던 이라크인 카심과 살람을 마지막 보고대회와 문화제에 참석시키기 위해 초청을 준비했다. 8월 초 본 연구자와 김 하운씨를 제외한 모든 반전평화팀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보고대회 및 평화심포지엄, 문화제 - 2003 이라크, 전쟁과 평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대부분의 팀원들은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각기 자신들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현지에서 오는 편지 정도만 한국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9월부터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원연대 일부 사람들과 주도적으로 반전평화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파병을

막기위해 결성이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재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군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이 연대체인 ‘파병반대 공동행동’ 과 연대하여 당시 이라크에 민간조사단을 보내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10월 18일 노무현 정부는 급작스러운 파병결정을 하였고 이는 지원연대와 공동행동이 연대활동(민간조사단 파견)에 결정적인 결림돌이 되었다. 이에 지원연대는 10월 말에 최혁, 김재복, 전미선, 김강필씨를 이라크 현지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조사활동을 벌이게 한다. 11월 말에 조사단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그간에 조사했던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려 했으나 크게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형성을 이루지는 못했다. 12월 12일 본 연구자가 이라크에서 돌아옴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연대의 활동은 끝이 난다.

5. 해외 단체 활동 정리

IPT, HUMAN SHIELDS 이외에도 각 국 평화활동가, 사회운동가, 정치인, 미 9.11 테러 유가족, 종교인 등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이 전쟁 전 이라크를 방문하여 시위, 거리행진, 기자회견, 민간시설 방문, 포럼, 음악회 등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들은 자신들의 숙소였던 팔레스타인 호텔, 셰라톤 호텔, 알 파날 호텔 등의 라운지나 광고판에 공고를 내면 그 것을 보고 다른 단체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3일전 티그리스 강 시냇다리에서의 시위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은 이라크를 빠져나갔다. IPT 27명, 휴먼실즈 5-60명 정도만이 남아 있었다. IPT 단체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의 부당함과 이라크 내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1996년부터 이라크 내에서 활동을 했으며 이라크 전쟁이 임박해지자 자연스럽게 반전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 반면에 휴먼실즈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말 전쟁이 가시화되자 이라크의 주요 시설물에 자신들의 존재로 폭격을 막아내자라는 대의아래 유럽쪽과 아랍쪽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 활동가들이 모인 형태였다. 이들의 단체의 활동들을 정리하면 <표 - 2> 과 같다.

<표 -2> 해외 주요 단체 활동 비교¹⁹⁾

단체명	HUMAN SHIELDS	IPT	CPT	구호단체들
국적	아랍권, 유럽권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영어권 나라	북미권과 가끔 영국, 스코틀랜드	적십자, 적신월사 등 유엔 등록 구호단체, 아랍권(이라크, 수단등) 유럽권(이탈리아, 노르웨이)
현지 (이라크) 활동시기	2002년 말부터	1996년부터	1984년부터 각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다. 이라크는 2002년부터	5년이상 이라크에 있었음
구성원	‘반전’ 이라는 대의 아래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들이 모임	미국의 모단체인 ‘Voice in the Wilderness’ 단체를 중심으로 교사, 법률가, 언론인등 다양	미국, 캐나다 등의 평화주의 종파의 기독교인들이 평화사역을 목적으로 모여, 훈련	구호전문가
전쟁 중 활동	이라크 정부에서 지정해 준 60여개의 시설 중	- 경제제재 철폐 및 전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시위,	- IPT와 함께 회의, 활동 - 정수장에 평화캠프	계속 돌아다니면서 상황 파악, 구호품들을

	군사시설 및 정부시설을 제외한 5개 장소(정수장, 발전소, 식량저장장고 등)을 정해서 시설 보호활동을 함, 낮에는 번전시위를 계속	언론보도 유도 - 전쟁범죄 모니터 및 민간인 피해 조사 - 응급조치 교육 및 의료봉사 - 언론봉사 - 이라크 주민들과 관계쌓기(바그다드 대학생에게 영어 가르치기, 아이들 생일 파티하기)	설치, 보호 - 장애고아시설 방문 봉사 -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장례식 참여 기획 - 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소식을 알려서 여론환기, 기도지원을 일으킴	주요장소에 배치, 전 후 본격적인 활동준비
전쟁 후 활동	미군 바그다드 입성 때 반미시위, 그 후 대부분 귀국	- IPT는 해체, 모단체 소수 인원이 남아 대안신문을 만들어 배포, 미군의 치안 유지등 설득 - 자국에서의 전쟁 증언	- 미군이 이라크 사람들을 힘하게 다루지 않도록, 방치된 무기를 수거하도록 설득 - 부당한 미군 점령 정책을 풍자하는 시위 - 이슬람 지도자 등과의 평화 기도회,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와의 연계 활동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중심으로 물품지원, 새롭게 들어오는 단체들에게 정보제공
특징	반전, 반제국주의, 반매 대의 외에 공통점 찾기 어려움	미 정부의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진실을 모르는 미 국민에게 이라크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평화 교육을 하는게 목적	기독교적 평화의 증인으로 현지에서 활동을 기획, 창의적으로 행함	특정국가의 이익에서 독립적임, 전쟁 전부터 계속 활동했음. 평화운동가들과 끊임없는 정보 공유

III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 되돌아보기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활동 되돌아 보기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지원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염창근씨는 지원연대의 한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최초였다. 실제로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사실상 많은 준비와 내실이 있어야 한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도 실제로 활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라크 지원연대에서 한국의 활동가가 없다고 해도 미국의 IPT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분쟁지역(팔레스타인, 발칸, 인도 카슈미르, 동티모르 중남부 아프리카)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와 경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

19) 2003년 8월 24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보고회와 평화문화제 「2003 이라크, 전쟁과 평화」 자료집 참조

누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세계 어디에도 분쟁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평가를 하자면 어쩌면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가졌던 방향과 혼란과 개개인간의 갈등, 그 안에서의 수많은 갈등들, 그것은 서포터(지원연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도 전적으로 서포터(지원연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IPT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의 평화활동가를 중심으로 30명정도의 서포터들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을 파견하는 문제에 집중을 했어야 한다. 자발적 구성, 굳은 신념, 결의등이 반전평화팀의 특수한 경우이고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 방향,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서포터(지원연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원칙으로 팀을 구성하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떠한 원칙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러한 혼란이 되지 못했다. 자발적이지만 이러한 것이 채워지지 못한 지점도 있다. 비폭력 저항, 저항의 방법 이러한 것들조차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 누구는 조사를 하고 누구는 구호활동을 하고 누구는 자기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습속, 그러한 것들을 관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단점으로써만 부각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는 지금에서는 공동체 훈련, 신심의 단련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상에서의 평화훈련등이 되어야 한다. 분쟁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내지는 상황, 울분과 분노 극한의 감정이 들어나는 곳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연대내에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다. 상황에 맞춰서 넘어가기 급급했다. 해내기 급급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다는 점, 경험으로써의 여러사람들과 공유한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연대는 전쟁 전까지 여러 단체와 정당²⁰⁾ 그리고 개인 활동가 지원그룹²¹⁾ 등이 결합하였지만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과 이라크전쟁의 종료에 따라 대부분 그룹들이 연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라크 민중지원연대로 바뀔 때는 지원연대 사무국장 염창근씨 혼자서 꾸려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는 지원연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운동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여겨진다. 특히나 연대체를 구성했을 때 그에 대한 이슈에 대해 자기 단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고 또 이슈가 사회적으로 시들해지면 많은 시민운동단체는 연대 활동을 소홀히 하던가 연대활동을 정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소위 연대활동을 할 때 이름만 빌려준다거나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 이번의 지원연대 활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원연대가 했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고 현지에 물품을 보내고 현지의 업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지의 소식을 한국에 전달하여 반전여론을 확산하고 현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반전활동이었다. 하지만 지원연대 사무국장 염창근씨는 독자적인 반전활동에 대해서 당시의 지원연대의 역량에 비해서 무리하게 벌였던 활동이었다고 여겼다. “ 촛불시위, 반전 캠페인, 일인시위, 집회, 거리캠페인 등을 하였다. 이는 나중에 정리할 때 비판을 많이 받았던 활동이었다. 여성해방연대에서 완벽하게 결합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나중에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이는 지원연대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난 지점이었고 나중에 독자적인 마로니에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내부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지원연대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재정, 상근 인력, 타 단체와의 연대수준)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의 사업들을 벌인 것에 대한 평가일 것이다. 지원연대의 가장 큰 업무는 현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팀에 대한 지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8월 24일 마무리 행사를 하고 나서 지원연대는 어떤 식으로 전화(轉化)가 필요했다. 지속적으로 이라크의 소식을 알려내고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던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조직이 필요했고 현지에서 가졌던 경험들을 축적하고 이어나가는 일을 했어

20) 당시 지원연대 초기부터 합류한 단체와 정당은 개혁국민정당, 사회당, 환경운동연합, 여성해방연대, 전국학생회협의회, 천주교평화연대, 한겨레신문,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건강연대등이 있다.

21) 박기범의 이라크 통신, 어린이도서연구회,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민족문화작가회의등이 있다.

야 했다. 이러한 필요성은 지원연대의 사무국장과 前반전평화팀원들 몇 명이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무리 행사가 끝난 후 다들 너무 지쳐 있었다. 다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시작하기에는 스스로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군대의 이라크 2차 파병문제는 불거졌고 이에 지원연대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파병반대 여론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는 지원연대와 다른 시민단체 연대체와의 연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쟁이 있기 전에 초기에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상진씨의 말에 의하면 “초기에 모일 때는(반전평화팀 결성시기에) 한국 전체 운동진영에 반전 평화운동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야기 해 놓고 출국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지원연대가 특정정당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깐 한국내에서 이라크 반전운동이 두개로 전쟁반대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이라크 반전평화팀하고 나뉘어져 버린 것이다.” 한상진씨의 의견을 연구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원연대가 당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공동체였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맞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연대의 잘못만은 아니다. 오김숙이씨의 지적처럼 운동권내에서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경계의 또 하나의 발현(發現)일 것이다.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분쟁지역에서 최초의 직접행동을 했던 선례를 남겼다. 또한 직업운동가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반전과 평화의 대의하에서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자발적 의지로 다수 참여하여 팀을 구성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진영에서는 새로운 시도였을 것이다. 이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한계이기도 하다. 최초의 직접행동은 그 만큼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팀 구성은 각 팀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했다는 것이고 이는 분쟁지역에서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인의 준비와 개인의 자격이 검증되지 않았고 팀으로써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되었다. 이에 당시 활동시에 불거졌던 문제와 한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보·준비 부족

먼저 지원연대 사무국장이었던 염창근씨는 현지에 대한 무지(無知)와 정보 부족, 준비부족에 대하여 지적한다. 당시 팀을 구성할 때 참가를 원했던 사람들은 반전과 평화에 대한 굳은 결의와 신념에 가득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의와 신념만 가득했을 뿐 현지에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누구와 연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었고 심지어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IPT의 한국 구성원으로써 요르단에 가면 바로 이라크로 들어가는 비자가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던 반전평화팀원들은 실상 요르단에 가서 비자를 받으려 할 때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요르단 주재 이라크 대사관에서 IPT 비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휴먼셀즈 비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서야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접할 때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있던 상황이었다.)이 펼쳐지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요르단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전 반전평화팀 팀장이었던 최혁씨는 “(들리는 정보에)이라크에서는 비자가 나온다. (할당된 비자가)나왔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보면 ‘아는 바 없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또 비자가 나온다 라는 소식을 듣고 대사관에 가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었다. 거의 한달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국제연대 활동이 마음먹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지적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의 IPT와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 예로 IPT에서는 한국의 반전평화팀에 대해 출국보류를 요청했지만 한국에서는 출국을 강행했다. 더구나 IPT에서 실질적으로 담보 할 수 있는 것은 비자문제였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지에서 IPT 비자가 나오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고 용감(?)하게 요르단으로 간 것은 국제 연대 경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내부갈등, 원칙의 부재

팀 내부의 갈등은 팀 활동 시작할때부터 잠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김숙이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팀을 구성하면서 활동의 상을 공유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이라크에서의 반전평화운동의 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채 활동이 지속되었다. 여기에 다양한 연령, 경험, 목적을 지닌 팀원의 구성은 우리 팀이 활동을 폭넓게 하기도 하였으나 끝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잠재되었던 갈등은 초기 활동때부터 표출되었다. 이라크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 획득과정에서 현지에서의 바뀐 상황은 이라크로 입국하기 위하여 사람을 선출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된 원칙이 없이 자신의 잣대와 판단으로 다른 이들에 대해 평가를 내려졌고 이는 합리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소수인원에 대한 배제와 소외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다. 더군다나 전쟁이라는 외적 상황은 각 개인들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여유를 빼앗아가서 각 개인이 받는 상처는 굉장히 심했다고 한다. 또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원칙은 필요로 했고 이 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각 개인의 이해와 바램은 서로 달랐고 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지만 부재했고 여기서 작동한 것은 권력이었다고 오김숙이씨는 회상했다. “당시의 기준은 나이의 높고 적음, 각 개인의 성격, 한국에서의 운동경험의 정도 같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운동의 경험이 적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당시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꼭 잡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내부의 갈등은 각 개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 뿐만아니라 팀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데에서 걸림들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반전 평화운동을 하는 팀 내에 평화가 없었다 라는 모순적 자기 비판도 등장했다.

오수연씨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오수연씨는 연구자와 다음 사실을 지적했다. “사실은 (현지로 들어가기 전에)계획을 준비해서 가야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급조된 단체이고 하고 싶은 일들이 다 다르고, 그러한 갈등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각자가 나가서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마치 누가 강제로 시켜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것이다. 일단 주체적인 자세가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 입술이 튕통나와서 말도 안하고 그렇다고 이것 하지 말고 만 것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사자까지 왔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인정하는 내부의 갈등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 갈등의 원인이 각 개인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팀원들이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조직운영에 있었다고 여기는 팀원들이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합의된 원칙이 부재했다는 것, 그리고 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조율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3) 언론과의 관계

반전평화팀은 활동 초창기에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팀원중에서도 언론기자가 있었고 활동 초기 언론은 반전평화팀의 행동에 많은 조명을 비추면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의 보도방향과 반전평화팀의 활동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김숙이씨는 언론에 의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진 사실은 언론의 속성이 평화활동과 다르며, 언론사기자는 평화활동가로서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이 임박해지자 한국언론의 취재와 보도태도가 문제였다. 마치 자신들을 취재원인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하려 했던 경우에서부터 언론기관의 비도덕성이 드러났고 또한 전쟁 초기 이라크전쟁의 참상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로서 우리 팀과 연결하기보다는 이라크 현지 한국팀원의 위험여부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 팀 뿐만 아니라 지원연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만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우리 팀이 미국중심, 전쟁수행 중심의 CNN 등 언론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겠다.”

(4) 팀원 개개인의 능력 부족

국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언어능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현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정보수집과 현지 문화이해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팀을 구성하는 초기 과정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최소한 의사소통능력이 되지 않은 팀원들이 합류됨으로써 그 팀원을 위해서 다른 팀원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팀 활동을 하는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 점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비폭력 감수성과 평화영성의 부재였다. 팀 활동이 종료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팀원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쫓기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안의 평화가 없었다는 점이고 이는 서로가 회의를 할 때나 합의점을 찾을 때 합리적인 토의와 토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유만을 이야기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급기야는 감정 대립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자세이다. 앞서 지적한 비폭력 감수성과 평화영성과도 일정 부분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면 분쟁지역에 가서 현지인을 대하는 활동가들이 지녀야 하는 자세는 겸손함과 상대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공손함일 것이다. 강인화씨는 연구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에서 지녀야 할 활동가의 자세를 지적했다. “분쟁지역에서 평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혜한다는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입장등 이러한 오만한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팀내에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도대체 이 곳에 무엇을 하러 올 것인지 의아해 했다.” 이러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세는 팀내에서 문제 뿐만 아니라 현지 활동함에 있어서 전체 팀의 결과마저 뒤흔들 수 있다.

2. 이라크 민중지원팀의 활동 되돌아보기

전쟁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구호 엔지오들은 이라크에 들어와서 구호사업들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쟁 직후 긴급구호가 필요한 시점은 전쟁 직후부터 한달까지 인데 지원연대가 지원을 시작한 시점은 전쟁이 끝나고 약 한달이 넘은 상태에서 이라크로 들어갔기에 긴급구호활동을 하지 못하고 바그다드 빈민지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약 한달간 지원활동을 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진행한 이라크 민중지원팀은 이라크 민중지원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반전평화관점에서의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이라크인들에 의한 재건이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구호단체와 NGO 단체와 차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민중지원팀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1) 민중지원 사업내용 형성 과정

이라크 민중지원팀이 이라크에서 했던 일을 간추리면 장기적 지원활동은 뉴 바그다드 5개 빈민지역 쓰레기 집하(集荷)장 건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와 운영, 그리고 빈민지역 영, 유아 분유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지원활동 등을 들 수 있고 단기적 지원활동은 뉴바그다드 5개 지역 쓰레기 수거, 아부그래브 지역 프라이머리 스쿨 학용품지원, 이란계 쿠르디쉬²²⁾ 이주 비용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초기에 민중지원팀의 파트너였던 아마르와 살람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고 현지에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였다. 당시에 마을 전체가 쓰레기 장을 방불케하는 쓰레기와 길 전체를 덮고 있던 오·폐수 들은 한 눈에도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때로는 무기가 널부러진 곳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들을 위한 공간 또한 시급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단기적 해결책보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까 라는 고민에서 나온 쓰레기 집하장 만들기는 당시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현지 파트너의 요구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다. 이는 이라크 인들에 의한 재건이라는 원칙과 잘 들어맞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팀의 재정과 활동기간이 한정된 상태에서 현지인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대해 계속 하다보니 나중에는 각 사업들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지인들의 요구에 따른 사업에 대해 팀 내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대부분의 팀원들이 사업이 수립되고 난 후에 합류가 되었기 때문에 팀내에서 현지인들의 요구에 의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

2) 민중지원사업 활동 기간

민중지원팀의 활동기간은 팀의 재정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초기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훨씬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지자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되어 갔다. 쓰레기 집하장 만들기는 6월 중순경에 대부분 끝이 났고 팀원들이 집중적으로 매달렸던 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만들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 당시 현지인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공간(도서관 내지는 공부방)을 생각했고 민중지원팀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놀이방)을 생각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일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시간에 쫓겨가면서 진행되었고 아직 명확히 공간이 만들어지지않은 상태에서 놀이방인지? 공부방인지? 목적이 애매모호한 공간은 문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문을 연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늘 천막을 지지하고있던 철봉대가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바람에 세명의 아이가 머리가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연못에서 놀던 아이들이 발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는 사고가 생겨났다. 이는 시간에 쫓겨 미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을 서둘러 개방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현지인과 팀원들과의 의견일치, 심지어는 공사를 진행했던 팀원들 간에도 정확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인 것이다. 또 현지 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추진도 문제가 되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계획에는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서 어린이들 뿐만아니라 근처의 어른들도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지만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현지의 전기 사정은 굉장히 열악했고 설사 연못안에 공급한다 하여도 그 물이 순환이 되거

22)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알 타쉬 캠프에는 이란계 쿠르드인들이 거주하는 집단 마을이 있다. 이는 사담 정권때 정치적 목적으로 알 타쉬 캠프로 강제 이주 시켰으며 20년 이상 사담 정권과 집권당 바트 당의 탄압이 있었던 지역이다. 전쟁이 끝난 후 국경 경계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고향(이란)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했고 이는 정토회와 천주교 평화연대와 민중지원팀이 함께 이주 비용을 지원했다.

나 잘 빠져나가야 하는데 현지의 배수시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연못을 만들 공간은 있는데 물이 없었고 무리하게 소방차를 불러서 물을 채웠지만 그 물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현지의 더운 날씨와 모래, 먼지는 연못 안의 물을 채움과 동시에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 예초의 계획과는 달리 그 곳은 관리 할 수 없는 흙탕물 웅덩이가 되어버렸다.

3) 민중지원활동 이 후

7월 28일 현지에서 이라크 민중지원활동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팀원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난 후 개인적으로 몇 일내지는 몇 달 더 활동을 하려는 팀원들은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실태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뉴바그다드 5개 빈민지역의 쓰레기 집하장 시설을 둘러보았다. 15개를 만들어 놓은 쓰레기 집하장 중 10군데를 둘러보았는데 3개는 현지 주민의 손에 허물어지고 부서진 상태였고 1군데는 미군에 의해 치워져 있고 나머지 6군데만 유지되어 있었다. 6군데의 쓰레기 집하장 또한 원래 목적인 인근 주변의 쓰레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집하장과 그 주변은 어떠한 경계도 없이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당시 집하장 시설을 둘러보았던 박기범씨는 귀국당시 작성했던 지원사업 활동 평가서에서 쓰레기 집하장에 대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의 예측과 달리 그것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이(이라크 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삼아 활동을 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그렇게 덜렁 시멘트 블록만 만들어 놓고(집하장)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쓰레기 집하장)을 지어 놓고, 단 한 번도 그것의 운영 실태나 문제점 따위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것도 떠나는 날까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살펴보지 않은 채 팀의 활동이 마무리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활동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을 7월 말에 정리한 것은 당시 재정이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이라크의 고온의 날씨와 열악한 삶의 조건은 한국에서 온 민중지원팀의 활동력을 떨어뜨렸고 오랫동안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팀원들은 많이 지쳐있었다. 그리고 7월 초순이 넘어서서는 다들 각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면서 그 전까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 하루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이는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이라크 민중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라크에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서는 계속적으로 이라크와 연결하는 초석이 되지 못하고 각기 개인들의 일상속으로만 묻혀버렸다.

팀원들이 복귀한 후 8월 말까지 놀이방 공사는 계속되었고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 후 다시 문을 열었다. 현지인 선생님을 고용하고 현지인 매니저를 두고 현지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지만 초기부터 쉽지 않았다. 어느 기간까지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때 까지 옆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원칙만을 쫓아서 문을 다시 열자마자 운영을 현지인들에게 넘겼더니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와 다시 상의를 한 후 일정기간 운영을 팀에서 남아있었던 연구자가 하기로 하고 일정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현지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 때는 팀은 철수한 상태여서 연구자 혼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들었던 생각은 팀의 원칙이 이라크인들에 의한 시설 운영의 원칙과 맞지만 그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보조(도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2월 초까지 운영을 하고 난 후 운영권을 현지인에게 넘기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온지 한달도 되지않아서 놀이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현지에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치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시설물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라크 현지인과의 교류와 현지에서의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팀의 활동이 정리되면

서 현지와의 교류도 중단되는 점은 아쉬운 현실이다.

3. 한국 이라크 반전 평화팀 성과

전 반전평화팀 팀장이었던 최혁씨는 반전 평화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렸다. “반전평화팀의 일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많다. 첫번째는 자발적으로 자기몸을 던져서 전쟁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비판하고 전쟁의 피해자들과 온몸으로 연대했던 것은 숭고하고 고귀했다. 한국에서 과병반대 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짧은 시기에 최초로 했지만 전쟁 전 중 후 일관되게 사업들을 연관하고 매듭지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반식의 활동에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직접행동, 최초로 이루어진 분쟁지역에서 일관되게 평화운동에 전념을 만들었다는 점, 무엇보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이라크에 세 차례 방문하고 활동을 했던 임영신씨는 팀의 성과를 “일반대중들에게 감동을 주는 활동들을 했다. 한국 사회내 반전·평화운동의 지평도 넓히고, 시민사회단체가 못 끌어내는 부분을 일반시민들의 행동과 글과 말로 대중적인 반전운동을 끌어냈다.” 고 평가한다.

그리고 유은하씨는 반전평화팀의 성과에 대해서 “한국에서 조직적인 반전평화운동으로서는 저희팀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배경, 계층, 연령에서 참여했고 고통받는 이라크인들과 함께 하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었고 전쟁 후에도 이라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속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마무리 행사때에 발표했다.

오김숙이씨 같은 경우에는 반전평화팀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내적(內的) 성찰에 많은 의의를 부여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짧은 시기에 내가 팀장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팀의 운영과 방식에 대해 생각 할 수 없었을 라고 생각해요. 이라크에 다녀오고 나서는 평화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 다른 지점으로 (생태주의) 고민들이 이동하고, 이러면서 내 자신의 고민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상처도 있구요. 예를 들어 (이라크에) 다녀오고 나서 바로 명동에서 단식농성을 했는데 그 과정도 많이 힘들었어요. 단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또 그런 것이 개인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많은 지인, 친구, 가족들이 한국의 반전평화팀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흐름이 형성되기도 하고 한국반전평화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주위에 전달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던 점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나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배운 것도 많고 스스로 성찰한 것도 있고 발견한(단점)것도 있고.....”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이라크 평화 정착을 위해 2002년 말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초 정식으로 결성되어서 전쟁 전까지 4번에 걸쳐 총 21명이 현지로 파견되어서 반전시위와 캠페인, 촛불시위, 이라크 내 조사작업들을 시행하였다. 전쟁 중에는 세 명의 팀원이 현지에 남아서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참상을 한국에 알렸고 이어나갔다. 전쟁이 종결된 이 후에도 ‘이라크의 재건은 이라크의 손에 의해’ 라는 원칙하에 전쟁으로 인하여 찢겨진 이라크 사회와 이라크인들의 가슴에 평화의 따스함을 전달하는 이라크 민중지원사업들을 진

행하였다. 7월 말 이라크 현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8월 중순 마무리 행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같은 해 9월 이라크에 한국군 추가파병문제가 불거지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계속적인 활동을 지속하였고 본 연구자가 12월 12일 귀국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을 정리하게 된 단체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내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전에 반전, 평화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전운동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평화운동도 주로 민족문제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틀 속에서만 논의되고 활동되어왔다. 반전운동의 경우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 전쟁이 후 보수·권위·지배세력들에 의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받아왔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논의 자체가 힘들었다. 평화운동을 주도했던 기존의 운동권 진영도 평화운동의 이슈를 민족과 북한과 남한의 문제들과 같은 이슈와 항상 연계시켜서 평화운동의 영역자체를 국내적, 민족적 영역내에 가두어 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시민사회내에서 반전평화운동은 다른 운동의 영역들(노동, 여성, 환경, 지역자치)에 비해 활동이 미비하고 협소했다. 하지만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과 촛불시위는 많은 한국 시민사회내의 시민들에게 미국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었고 양심적 병역거부운동과 같은 소수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저항은 기존의 운동의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의 운동이 생성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생겨났고 활동을 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이라크전쟁 전 한국 시민사회의 반전운동을 이끌었으며 기존의 적박한 한국 시민사회내 반전평화운동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팀에 결성되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현지의 활동을 전달하였고,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감동을 받았고 반전운동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운동의 흐름과는 구별되는 성과점을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라크에 관심을 갖고 이라크 민중지원을 할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내 내부 갈등을 겪었고, 이전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활동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다. 그리고 반전평화활동이 팀의 활동정리와 함께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속적인 이라크 지원활동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처럼 반전평화팀의 성과와 한계는 명확하다.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은 한국 시민사회 운동영역 중 반전평화운동영역에 하나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이제 막 싹을 틔웠고 이러한 싹을 더 키우고 가꾸기 위해서는 성과는 성과대로 남기고 한계와 문제점은 그에 맞는 대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조심스럽게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반전평화팀의 내부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내부갈등 표출과 팀내 활동원칙 부재, 그리고 국제연대 경험 미숙에서 오는 단점을 뛰어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 훈련과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연대 강화이다. 미국의 IPT 단체 나 캐나다의 CPT 단체 같은 경우 현지에서 국제 활동 하기 전에 자국에서 공동체 훈련(지속적인 합숙, 공동체 삶 훈련)을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한다. 이를 통해서 분쟁 지역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쌓고, 활동가 내부에 지속적인 평화 영성을 길러나가고, 팀내에서 갈등들을 조절하는 훈련을 익힌다. 더불어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원칙을 수립해 나가고, 비상시 원칙을 정할 때의 과정 또한 훈련을 통하여 익힌다. 또한 지금도 많은 국제 반전 평화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과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류하고 반전 평화운동의 흐름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의 활동이 있을 시에 조직적인 연대를 통하여 분쟁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반전평화활동 이어나가기이다. 이라크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미군의 점령이 후 계속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이 있고 이에 대한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인하여 이라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전시(戰時) 상황이다. 연구자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라크 활동이 정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다시 이라크로 들어가서 각 단체의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먼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던 단체와 개인들은 이라크의 상황을 더욱 알리고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사전 정보를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라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카슈미르 지역, 미군의 점령하에 있는 아프카니스탄 지역, 중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내 내전이 있는 지역등등 여전히 지구상에는 많은 분쟁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응답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반전평화팀원이었던 은국씨와 허혜경씨가 반전평화팀 활동이 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보고서는 주요 팀원들의 인터뷰와 현지에서 보낸 일지와 편지 등을 중심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에 팀 전체의 시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 비슷한 목적으로 활동했던 해외 단체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개(IPT, CPT, HUMAN SHIELDS)단체의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 현지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많은 활동을 하였음에도 그들의 활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쟁 전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전시위와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활동들을 정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팀의 활동을 정리를 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도 의문이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과 지원연대의 활동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기점으로 현지에서 활동했던 국내 구호단체들과 선교 단체, 그리고 평화운동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 활동의 의의와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더불어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현지에서 평화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NGO 단체들의 활동도 소개하고 그들의 활동사례도 연구하는 것은 장기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김재두 (2002). 『이라크 전쟁』. 한국국방연구원
 노암 촘스키 외 (2002). 『미국의 이라크 전쟁』. 북막스
 (2001). 『전쟁과 평화』. 삼인
 마크 트웨인 (2003). 『전쟁을 위한 기도』. 돌베게
 박홍규 (2003). 『총칼을 거두고 평화를 그려라』. 아트북스
 요한 갈통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우리만화연대 외 (2003). 『NO WAR!』. 청년사
 유은하 (2003). 『아이들에게는 전쟁이 없다』. 열림원
 정육식 (2003).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후
 타르크 알리 (2003). 『근본주의의 충돌』. 미토
 하워드 진 (2003). 『전쟁에 반대한다』. 이후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2003). 『이라크에서 온 편지』. 박종철출판사
 (2003).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백서』.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지원연대

2) 인터넷 사이트

- 광야의 목소리 <http://nonviolence.org/vitm>
- 비컴더체인지 <http://www.becomethechange.org>
- IPT(Iraq Peace Team) <http://www.iraqpeaceteam.org>
- 진실&정의&평화를 위한 인간방패 <http://www.humanshields.org>
- 한국아나뱃티스트 센터 <http://www.koreaanabaptistcenter.org>

부 록

목 차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 일지	-----83
2.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최초 활동 기획안 2003/01/15	-----88
3. IPT 로의 초대	-----92
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설립 계획서 2003/02/05	-----95
5.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라크 입국 기자회견문과 현지 활동계획서2003/02/27-100	
6. 미국의 개전(開戰)에 따른 반전평화팀 반대 성명서 2003/03/20	-----104
7. 미국 개전에 따른 반전평화팀 지원연대의 성명서 2003/03/20	-----106
8. 전쟁에 대한 기록, 증언 - 배상현 2003/03/29	-----108
9.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대한 성명서 2003/04/01	-----116
10. 임영신, 배상현 씨 국적포기에 관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성명서 2003/04/03	-----117
11. 이라크 전쟁 직 후 현지 의료 상태 조사 보고서 - 임영신 2003/04/14	-----118
12. 이라크 민중지원사업 계획서 2003/04/29	-----123
13. 반전평화팀지원연대에서 민중지원팀 지원연대로의 轉化 계획서 2003/04/28	---133
14.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마무리 행사 안내장 2003/08/23	-----137
15.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현지 성명서 2003/09/25	-----138
16.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이라크 인들에게 받은 편지들 2003/10-	141
17. 바그다드 지도	-----149

부록 1.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활동일지

2002년

12월 말 : 한국의 평화운동가들, 이라크 현지에 대한 반전평화 직접행동에
초 지원자 모집 동의, 1월

2003년

1월 초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자들 동참 결의, 구체적 준비 돌입
1월 중순 : 미국의 IPT 일원으로 합류 결정, 한국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 연
과 접촉 시작 론단체들
1월 말 : 참가자들과 재정 등 실무적 준비 부족으로 1진 출국 2월 초로 연기
2월 4일 : 참가 지원자 전원과 지원을 고려하는 단체들과의 미팅, 한국 이라
크 반전평

화팀 결성

- 2월 5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 결성, 사회당 중앙당사
- 2월 7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1진(한상진, 이영화, 남효주)출국
- 2월 16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 1차(성혜란, 은국, 전승로, 허혜경) 출국
- 2월 18일 : 이영화, 남효주 건강악화로 인해 귀국
- 2월 19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2진 - 2차(김력균, 오김숙이)출국
- 2월 22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3진(박기범, 이윤벽, 임종진, 최혁)출국
- 2월 23일 : 요르단 현지 반전평화팀 체계 및 활동 전반에 대한 회의 진행
- 2월 27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10명 이라크에 입국, 한상진 잔류
- 3월 1일 : 이라크 내 집회 참가, 바그다드 시내 거리행진
- 3월 4일 : 바그다드 타흐르 광장에서 반전평화행사 진행
- 3월 5일 : 정재원(러시아 유학생)합류, 한상진, 정재원 이라크 입국
- 3월 6일 :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팀 이라크에서 요르단 암만으로 나옴, 4진(배상현, 임영신, 유은하, 이해종, 주재일, 최병수)출국 상현, 임영
- 3월 11일 : 은국, 허혜경 귀국, 이라크 재입국 1팀(임영신, 최병수, 최혁, 임종진) 암만 출발, 다음날 바그다드 도착
- 3월 12일 : 이라크 재입국 2팀(박기범, 성혜란, 이해종, 정재원) 암만 출발
- 3월 13일 : 이라크 재입국 3팀(배상현, 유은하, 주재일) 암만 출발, 오김숙이, 전승로 암만에서 난민구호활동 준비
- 3월 14일 : 바그다드내 올드 바그다드에서 반전캠페인 진행, 오수연 출국
- 3월 15일 : 1팀 이라크 북부지역 조사, 2팀 바그다드내 고아운 방문활동
- 3월 16일 : 타흐르 광장에서 반전평화퍼포먼스 진행, 이창용 출국
- 3월 17일 : 티그리스 강 촛불시위진행, 재입국팀 3인(한상진, 유은하, 배상현) 을 제의 하고 요르단으로 돌아옴, 유은하, 한상진 IPT로 합류, 배 상현 휴먼셴즈로 합류
- 3월 19일 : 요르단 반전평화팀 상황실설치, 체계를 정비함, 전쟁 중단 요구성 명 발표
- 3월 20일 : 개전, 배상현 오후에 유은하, 한상진 그룹과 합류, 요르단 반전평 화팀 침
- 3월 21일 : 요르단 반전평화팀 암만 반전집회 참가,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 회 진행 공동성명서를 냄
- 3월 22일 : 요르단 반전평화팀 한국대사관앞 시위
- 3월 26일 : 요르단 반전평화팀 국경근처 적신월사 난민촌 방문, 신성국, 김하 운 출국
- 3월 29일 : 배상현 암만으로 전쟁범죄 보고서를 들고 나옴,
- 4월 1일 : 한상진 이라크에서 나옴, 박기범 이라크 입국, 배상현, 한국군 파병 에 반대 하며 국적포기를 선언
- 4월 2일 : 한국, 파병동의안 통과, 임영신 국적포기 선언
- 4월 3일 : 배상현, 임영신 귀국, 청와대 항의방문진행
- 4월 5일 : 유은하, 박기범 미셔너리 오브 체리티 방문, 자원활동 시작
- 4월 8일 : 귀국한 반전평화팀 명동성당앞 천막농성 시작
- 4월 9일 : 미군 바그다드 함락, 유은하, 박기범, IPT 회원 미군앞 시위
- 4월 11일 : 바그다드 휴먼셴즈 마지막 시위 진행, 바그다드 조성수 기자 의약 품 지원 요청
- 4월 12일 : 임영신, 한겨레 팀과 보건의료연합 의료진과 함께 출국
- 4월 15일 : 임영신 그룹, 현지 유은하씨와 합류, 임영신 그룹 병원 및 빈민지 유은하 장애아동 시설 방문 역조사,